

2021 순천문화재단 순천문화연구 소모임 활동 보고서

정원이 되어 버린 마을
평촌마을 · 신산마을



Contents

들어가며

- 1. 들어가는 말 6
- 2. 정원이 되어버린 마을을 기록하다 8

I. 평촌(하풍)마을

- 1. 평촌마을의 역사 12
 - 1) 마을의 유래
 - 2) 지형
 - 3) 마을 변천사
- 2. 키워드 17
- 3. 주민 구술채록 ‘마을 그리고 기억’ 24

II. 신산마을

- 1. 신산마을의 역사 54
 - 1) 마을의 유래
 - 2) 지형
 - 3) 마을 변천사
- 2. 키워드 57
- 3. 주민 구술채록 ‘마을 그리고 기억’ 64

Ⅲ. 순천만국가정원과 마을

1. 평촌마을과 신산마을의 마지막 모습 76
2. 토지 보상 과정 77
3. 토지 보상 담당공무원의 기억 79

부록

1. 정원이 되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86
· 기록활동 후기
2. 평촌마을과 신산마을 변천사 90

들어가며

1. 들어가는 말
2. 정원이 되어버린 마을을 기록하다

1. 들어가는 말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순천시는 지방도시 중 드물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다. 인구는 늘고 있지만 주위에는 사라져가는 마을들이 있고 예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마을들이 있다. 일찍이 상사조절지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많은 마을들이 있었고, 오지라고 불리는 곳들의 마을은 몇 년 후면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사라지는 마을의 이야기는 다 변두리만의 일인 줄 알았지만 도심 속에도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또는 순천만국가정원과 같은 대규모 공간이 조성되면서 하나둘씩 사라진 마을들이 있었다. 인터넷과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되기 이전에 사라져버린 마을들은 이제는 서류상으로만 남은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곳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의 사람 사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다.

우리는 2013년 순천만국가정원이 조성되면서 사라져버린 마을을 생각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들은 여전히 한 곳에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마을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을 기억하는 가장 젊은 분들이 이미 60대에 접어들었고 주로 70대 후반 분들이었다. 몇 년 후면 지금 이 마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지 모른다.

우리가 이 기록활동의 취지를 말씀드릴 때마다 모든 주민들이 공감해 주었다. 기꺼이 자신이 기억하는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료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

3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십여 년 전 사라져버린 마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미약하나마 우리가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옛 마을을 다시 한 번 대화 속으로 끄집어냈다는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우리 <구상나무>팀과 같이 평범한 시민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역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삶의 기록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정원이 되어버린 마을을 기록하다

· 필요성과 취지

순천만국가정원이 생김으로써 사라진 마을들이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구역 네덜란드정원에서 중국정원까지에 걸쳐 있었던 평촌마을, 그리고 서문 구역 스카이큐브 정원역과 WWT습지에 자리했던 신산마을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정원에게 내주었다. 마을을 떠난 주민들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정착했지만 그들의 유년의 기억과 청년의 기억, 중년의 기억은 오롯이 사라져 버린 그 마을 속에 살아있다.

그 기억들을 모아 평촌마을과 신산마을을 기록 속에 다시 되살려보고자 한다.

· 기록의 대상과 범위

정원이 되어버린 평촌마을과 신산마을을 조사하였다. 마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그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먼저 문헌이나 자료를 찾아 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주한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탐방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순천만국가정원의 조성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I. 평촌(하풍)마을

1. 평촌마을의 역사
 - 1) 마을의 유래
 - 2) 지형
 - 3) 마을 변천사
2. 키워드
3. 주민 구술채록 '마을 그리고 기억'

II. 신산마을

1. 신산마을의 역사
 - 1) 마을의 유래
 - 2) 지형
 - 3) 마을 변천사
2. 키워드
3. 주민 구술채록 '마을 그리고 기억'

III. 순천만국가정원과 마을

1. 평촌마을과 신산마을의 마지막 모습
2. 토지 보상 과정
3. 토지 보상 담당공무원의 기억

I. 평촌(하풍)마을

1. 평촌(하풍)마을의 역사

1) 마을의 유래

하풍(下豊)마을은 순천시가 중심지에서 동남쪽으로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 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마을에 윤씨(尹氏)가 많아 윤촌(尹村)이라 불렸으며 산이 없고 들로만 이루어진 평평한 땅이라 하여 평촌(平村)⁽¹⁾이라 불렀다 한다. 그 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하풍이라 하였다.

- 순천의 마을 유래사, 순천문화원(1993)

35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파주에서 온 윤근구(尹謹鬻)씨가 정착하면서부터 마을을 평촌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1949년에 순천시로 승격하면서 풍덕동 하풍 마을로 명명되었고 당시 82세대가 거주하였다. 1962년 8.28 대수해로 인해 많은 집들이 파괴되어 일부 주민들은 새로 조성된 C지구 등으로 이주하였고 50 가구 이상은 마을을 복구하여 그대로 살았다. 그러다 80년대 초 순천시의 협조를 받아 현재의 하풍마을에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대부분이 1차로 이

(1) 지금은 평평할 평, 평촌(平村)이라고 부르지만 처음에는 마름 평, 올밭 평, 평촌(萍村)이었다는 말이 있다.

주하였고, 2009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장소로 선정되면서 마을이 완전히 이주함으로써 평촌마을은 사라졌다.

- 하풍(평촌)마을 망향비



하풍(평촌)마을 망향비(순천만국가정원)

2) 지형

현재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구역 네덜란드정원에서부터 꿈의 다리가 있는 곳까지가 평촌마을이 있던 자리다.

순천 동천의 중하류 지역으로 하천 퇴적작용 때문에 하천의 양안에 형성된 범람원이다. 동천에는 모래가 많아 강물 가운데 모래섬이 있을 정도였다. 지역 대부분이 배후습지인 평지로 구성되어있고 지대가 낮아 장마철에는 하천이 자주 범람하였다. 동천을 끼고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마을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물을 파면 뽕물이 올라오는 바람에 먹을 수 없어, 깨끗한 동천물을 퍼다 식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1948년 평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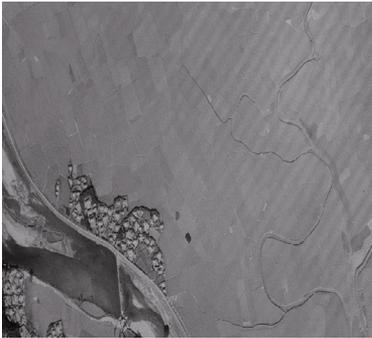


2010년 평촌마을

3) 마을 변천사

350여 년 전 평촌마을은 동천 건너 오림마을에 살던 파평 윤씨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마을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림마을에서 평촌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뗏목을 타고 오다가 사람이 죽게 된 일을 계기로 아예 윤씨들 전체가 평촌마을으로 이주를 했다고 한다. 동천 하류 쪽에 있는 평촌마을은 잦은 수해를 겪었으며 1962년 8월 28일 대수해로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집을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평촌마을을 떠난 가구 수가 전체가구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그 후로도 잦은 침수 피해를 당했던 평촌마을은 1984년 지금의 하풍으로 마을 전체가 이주하게 되었고 평촌마을에는 5세대 정도만 남았으며, 남겨진 빈집들은 축사로 사용되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당시 토지보상을 할 때에는 축사 8곳과 살림집 한 채만이 있었다고 한다.

〈사진으로 보는 평촌마을 변천사〉



1948년



1970년



1979/80년



1985년



1990년



2010년

순천시청 홈페이지 지리교통, 공간정보, 순천시 생활지리 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모래

옛날 동천에는 모래가 많아서 모래섬이 있기도 했다. 마을사람들은 거기다 채소를 키우기도 했는데 혹 비가 많이 오면 잠겨버려서 밭을 망치기도 했다. 꿈의 다리 부근에서 양질의 모래가 많이 나와서 모래 채취가 이루어졌고 한때는 그것으로 돈을 벌기도 했다. 평촌마을 보 밑 모래는 빨이 많이 섞여 있어서 질이 좋지 않았다.

배형

평촌마을은 땅 모양이 배형이라 우물을 팔 수 없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새어나와 배가 가라앉기 때문이라는데 실제로는 우물을 파면 모래와 빨이 섞인 물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천에서 물을 길러다 먹었다.

호열자(콜레라)

호열자(虎列刺)는 콜레라의 음역어로, 급성 설사와 복통,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탈수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전염성 감염 질환이다. ‘호열자’란 ‘호랑이한테 찢겨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대변하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라를 일컫는다. 지금은 걸리는 사람도 거의 없는 지난 세월 속의 병이지만, 선조들에게 이 병은 치료법을 알 수 없는 공포의 병이었던 것이다. 신문기사를 보면 1946년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대유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평촌마을도 콜레라를 피해갈 수 없었다. 호열자 환자가 있는 집들은 새끼줄로 금줄을 쳐 놓고 출입을 금지시켰다. 전염성은 강하고 치료약은 없고 해서 집집마다 매운 고추를 태워서 병균을 없앴으며 막걸리를 먹으면 소독이 된다는 소문에 아이들에게도 막걸리를 먹였다고 한다.



남은 7월 1946년 7월 10일 당계리에서 제1차 인제형 콜레라 역병 발발에 선두 역할을 한 마을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호열자 예방을 위한 4가지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1946년 7월 10일 당계리에서 제1차 인제형 콜레라 역병 발발에 선두 역할을 한 마을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호열자 예방을 위한 4가지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1946년 7월 10일 당계리에서 제1차 인제형 콜레라 역병 발발에 선두 역할을 한 마을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호열자 예방을 위한 4가지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호열자 예방 포스터

赤信號(적신호)호열자 漸次(점차)로猛威(맹위)

동아일보 | 1946.06.25 기사(뉴스)

赤信號(적신호)호열자 漸次(점차)로猛威(맹위)

人命(인명)을 잃는 東津(동진강)流城(유역)

防疫義勇隊(방역의용대)와給水隊(급수반)을 派遺(파견)

한편침입한 호열자 병마는 남조선전역을 폭력하는데서 보고있어 조금도 방심할수없는 현면이다지 역적으로보아 환자의발생은 전벽이 동진강하류(東津江下流(동진강하류))지역이 가장심하여 지난二十(이십)일현재로 동류역이 부안(扶安(부안))정읍(井邑(정읍))김제(金堤(김제))三(삼)군은 三(삼)백九十九(구십구)명의환자가 발생되었고 사망자二(이)백명에 달하였다
현지를답사하고 二十三(이십삼)일에돌아온 경의전교수 기용숙(奇龍肅(기용숙))씨가 보건후생부에 보고한바에의하면 이지방의 어떤부락은호열자를 무서워서 다른곳으로옮아가는곳도있으며-일(일)가족이 몰사한곳도있는참상이다.이러케 심한원인은대체로 주민들이 위생관념이 확약한 의료시설이 부족한것 또는 동진강류역의강물을 음료수로사용하는것등을 들수있는데 보건후생부에서는현지에 방역의용대(防疫義勇隊(방역의용대))와 동진강하류지방에 급수반(給水班(급수반))을파견하여 방역의 긴급대책을 실시하기로 되었다한다

호열자 대유행 기사(1946, 동아일보)

새마을 필승 목표

1972년 풍덕동 하풍부락의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확장, 토관매설, 석축과 담장 쌓기, 지붕개량 등을 채택하였고 부락민 전체가 협동단결 하에 추진할 것을 필승목표로 삼는다.



하풍부락 새마을 필승목표(풍덕동 주민자치회)



확장된 안길과 개량된 담장(풍덕동 주민자치회)

독수리

순천만국가정원이 조성 되기 전 평촌마을에는 축사가 많이 있었다. 주로 개나 염소를 사육했는데, 죽은 염소 등 사체와 도축 시 나오는 부산물들을 주워논 위에 던져두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체를 먹기 위해 독수리들이 날아왔는데 많을 때는 50여 마리 정도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다가가면 바로 날지 않고 퐁뚱뚱 뛰어가곤 해서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다.



평촌마을 독수리(이천식 제공)

펄프공장과 비행장

현재 하풍마을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지은 펄프공장이 있었다. 이후 한동안 군부대로 이용되었으며 옆에 비행장이 있었다. 중앙국민학교를 다닌 평촌마을 아이들은 이곳을 지나다니며 자연스럽게 놀이터로 이용했다.



하풍마을에 있었던 펄프공장(1948)



1970년 군부대와 비행장

중앙국민학교

평촌마을 아이들은 지금의 옥천현대아파트 부근에 있었던 순천서국민학교 (1943년 개교)를 다녔다. 1947년 서국민학교는 승평국민학교로 바뀌었으며 이후 지금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고 1954년 중앙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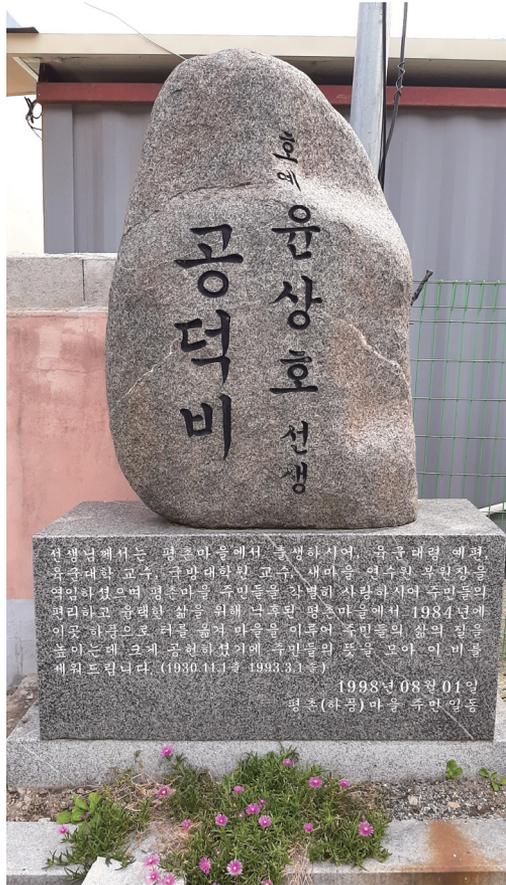
옥천현대아파트(2020)와 순천서국민학교(1948)



2020년과 1970년 중앙국민학교

윤상호

윤상호는 평촌마을에서 출생하여 대령으로 육군에서 예편하고 육군대학 교수, 국방대학원 교수, 새마을 연수원 부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평촌마을 주민들의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낙후된 평촌마을로부터 1984년 현재의 하풍으로 터를 옮겨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주민들은 이를 기리고자 하풍 경로당 앞에 공덕비를 세웠다.



윤상호 선생 공덕비

3. 주민 구술채록 ‘마을 그리고 기억’

1) 평촌마을 윤만태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1941년 평촌마을에서 태어났고 44년간 교직생활을 하다 은퇴한 윤만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풍덕동 하풍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하풍은 평촌마을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집단 이주해 정착한 제2의 평촌마을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생긴 옛 마을 터에 마을지도를 만들어 남겨



2020년과 1970년 중앙국민학교

저는 교직생활을 하며 이미 마을을 나와 산 지 오래된 상태였지만 마을이 없어진다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흔적을 어떻게든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난색을 보여서 우리 주민들이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순천 시로부터 땅 30평을 제공받아서 조성하면서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도 제작에 필요한 기록들을 찾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이 드신

마을 어른들의 자문을 얻어 그렸습니다. 1962년 수해가 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호칭은 택호가 있는 분들은 택호를 넣고 없는 분들 이름을 넣었어요. 다행히 잘 만들어져 지금 국가정원 안 한방체험센터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을을 그 자리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으니 큰 위안이 되지요.

마을지도에 보면 큰 당산나무가 한 그루 있지요? 옛날에 한 어르신이 마을을 상징하기 위해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당산나무 그늘에서 책도 보고 놀고 나무에 올라가 하천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른들에게는 쉽터 같은 나무였고요. 그런데 수해가 나면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평촌마을의 유래와 변천사

저는 파평 윤씨입니다. 임진왜란 무렵에 파주에서 내려와 먼저 오천동 오림마을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신씨, 오씨들도 함께 내려와 세 성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중 신씨가 제일 먼저 정착을 했다고 해요. 다음에 윤씨, 마지막에 오씨가 왔어요. 그때 오림에서는 냇물을 건너다니며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24대 조상인 할아버지가 “평촌마을로 내려가서 살아보자”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윤씨들이 옮겨서 자리 잡으면서 평촌마을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림마을에는 윤씨는 한 명도 살지 않아요.

1949년 8월 15일 순천시로 승격이 될 때 마을 이름이 평촌에서 하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으로는 풍덕동에 속하게 됐고요. 현재 풍덕동사무소 쪽을 원풍, 아랫장 쪽에서 남산중학교 있는 데를 상풍, 우리 마을을 하풍 그렇게 불렀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의 우리 마을이 있는 한신아파트 근처는 집이 한 채도 없는 벌판이었어요.

수해, 그리고 마을의 이주

평촌마을 하면 물난리와와의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1962년도 순천 대수해가 났을 때 한 20채 정도 침수되고 20채는 반파되고, 나머지는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마을사람들 모두 피난 가느라 정신없었어요.

사망자는 국민학교 2학년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그 집에 그냥 있었으면 변을 안 당했을 텐데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어요. 수해가 난 시각에 바닷물이 올라왔습니다. 민물이 올라와준 덕에 급류가 세지 않아 다행히 사망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니다. 지붕으로 피신해 올라가고, 떠다니는 초가지붕 잡아타고 펄프공장으로 밀려 올라간 다음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어요. 다른 마을들은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 중앙국민학교가 이재민 대피소로 사용됐어요.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도 와서 격려하고 상습침수지역인 마을의 이주를 약속했지요. 마을 전체가 이주를 하겠다면 중앙국민학교 앞으로 옮겨 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마을주민들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대부분 농사꾼인데, 중앙초 앞으로 이사를 가 버리면 논밭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각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을에 그대로 남을 사람은 남고, 순천고 뒤 C지구로 이주를 원하는 세대는 일부 가게 되었어요. 농사가 많지 않거나 크게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C지구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80여 호 중 45호는 마을에 남고 나머지는 이주하게 되었는데, 우리집은 복구비를 받아 집과 마을을 복구하여 마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일이 반복했습니다. 다시 순천시에 건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미 중앙국민학교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서 마을 전체의 이주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로 결정되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나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마을 출신의 윤상호 씨입니다. 힘을 많이 써 주었지요. 1984년 이주하고 나서 주민들이 그분의 공덕비를 세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떠나고 난 평촌마을 옛터는 한동안 개나 염소 키우는 축사로 쓰였어요. 빈집이 많으니까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집을 빌려서 들어온 거지요. 논과 밭이 있는 사람들은 오가며 농사를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때도 두세 가구는 남아있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떠난 집도 있고, 종갓집이어서 이주 못 하고 살았던 집도 있었습니다.

평촌마을에서의 유년시절

넷가를 끼고 있는 동네라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해엄치기와 낚시였어요. 겨울 빼고는 항상 넷가에서 놀고 시간을 보냈지요. 국민학교 입학은 원래 옥천동 현대아파트 쪽에 있던 서국민학교로 했어요. 어린애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어요. 당시 남국민학교에는 저전동 등 시내 아이들이 배정되고, 나머지 풍덕동, 조곡동, 생목동, 덕암동 등지의 아이들은 일괄 서국민학교로 배정했어요. 학생 수에 비해 학교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별로 나눠져서 향교에서도 공부하고, 공마당 어딘가 가서도 하고 그랬어요. 다니면서 승평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제가 4학년 때 지금의 중앙초등학교 자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이름은 승평국민학교였으나, 6학년 때 중앙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나를 선생님이로 만들어준 사범병설중학교와 사범학교

중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병설중학교와 사범학교를 거쳐 교사가 됐습니다. 지금의 조례동의 공고가 그때는 사범학교였어요. 나중에 실고로, 또 공고로 바뀌게 되었지요. 대학 등록금 걱정이 없는 친구들이야 마음 편하게 순천고를 가도 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집 아이들은 대학을 못 가니까 사범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교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만 뽑혀서 입학했지요. 순천고는 돈 많은 집 아이들이 들어갔고요. 순천중학교는 그냥 들어가도, 사범병설중학교는 순천뿐 아니라 여수, 광양에서 1~3등 하는 애들만 입학했어요. 병설중학교는 수업료가 일반 중학교보다 싸고 사범학교는 아예 등록금이 없었어요. 졸업하면 교사로 발령도 나지,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8박9일 동안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이틀간 구경하고 중앙선을 타고 안동으로 갔고, 다음 경주에서 1박2일을 보내고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배 타고 여수로 오고. 사범학교만큼 수학여행을 멋지게 가는 학교는 지금 생각해봐도 없어요.

사범학교를 다닐 때도 마을에서 꽤 먼 거리였지만 우리 마을 정도는 양반이었어요. 대대, 상사, 서면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광양 옥곡에서 사범학교까지 걸어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수 울촌 학생들은 기차를 타고 통학하고,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지요.

44년의 교직생활, 선생님은 나의 천직

지금은 폐교되고 없지만 상사 서국민학교라고, 1961년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의 쌍지분교 자리가 옛 서교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은 순천중앙초등학교 교장

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 출신인 데다, 교생실습도 중앙에서 하고 퇴임도 거기서 해서 저에겐 의미가 남다른 학교입니다. 그래서 모교를 위해 동창회 조직도 했지요. 애정이 많이 갑니다. 제 나이 지금 82세인데, 그 사이에 제가 몸 담았던 옛날 학교들이 거의 폐교가 많이 되어 버려 아쉽습니다.

저는 교사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때려 본 적이 없어요. 말로 타 이르니 아이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졸업한 뒤에는 편지도 자주 보내와요.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아침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 하나가 복도로 쫓겨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이 바쁘게 농사를 짓느라 자식들한테 신경을 써주지 못하니 자주 지각을 하게 됩니다. 지각을 하면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혼자 공부를 하곤 했지요. 그런 기억이 좋게 남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담임선생님을 조용히 불러서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복도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나이 먹어갑니다. 70대가 된 제자도 있습니다.

아내와는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란 사이

아내와는 평촌마을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집안끼리도 서로 너무 잘 알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봐가면서 지냈던 사이였지요. 집사람은 동네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살아 온 것도 집사람의 노력 덕분입니다. 고맙고 또 고맙지요. 제가 7남매 중 장남이고 아버지 형제도 9남매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였지만 큰아버지가 객지로 나가셔서 아버지가 부모님 모시고 장남 노릇을 해야 했어요. 농사 짓느라, 대가족 챙기느라 집사람이 고

생 많이 했지요. 제 동생들 다 결혼시키고 우리 아이들 3남 1녀 키우면서 번거로운 집안일이 많았지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 약사, 언어치료사로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2) 윤자 시인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마을에서 나서 자랐고, 뒤늦게 못다 한 공부를 해서 시인이 된 윤자라고 합니다. 저는 유복하게 자란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을에서 이장 같은 일을 맡아 보셔서 마을사람들이 우리집을 '이사장집'이라고들 불렀던 게 기억나요.

순천만국가정원이 생긴 자리부터 한신아파트까지를 전부 '큰들'이라 불렀어요. 모래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사평이라고도 했답니다. 모래들이 국가정원이 된 게 참 신기했어요. 가을이면 황금물결을 이루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땅이었어요. 타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1962년 큰들을 지키던 독이 터져서 마을이 물에 잠겨 살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윤상호라는 분이 국방대 교수까지 했던 분인데, "우리 고향 마을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폐허가 되고 말았으니 한신아파트 앞 새 동네로 이전을 하게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땅을 마련해 줬어요. 한 집당 70~80평 정도를 싸게 사서 동네가 그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주해서 집을 지을 때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짧은 기간에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어린 내가 뛰어 놀던 기억의 속의 평촌마을

중앙국민학교에 다녔어요. 오빠들이랑 동생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저만 공부를 못했어요. 호열자병을 앓아서 9살에야 뒤늦게 학교에 입학했는데, 또 아파서 중간에 1년을 더 쉬었어요. 그래서 4학년 올라가야 할 나이에 동생 이랑 같은 학년이 된 거예요. 나이 많다고 아이들이 놀려댔어요. 참고 참다가 아이들이랑 대판 싸웠는데 저쪽 부모들이 와서 야단칠 것 같고, 아버지 아실까 봐 무서워서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대로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학교에 가라고 하시는데 또 놀림감이 될까 봐 안 갔어요.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한문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웠어요. 아버지가 당시 매산고를 나오신 양반이라 아는 것이 참 많았어요.

풍덕동 한신아파트 옆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왜정시대 때는 종이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폭격을 맞은 뒤로는 군부대로 사용했다고 해요. 군인들이 동천에서 군복을 빨아 돌 위에 널어서 말려 놓고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을 어릴 때 자주 보았어요. 나중에 군인들이 떠난 자리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그곳에는 군인들의 옷가지, 워커, 수류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수류탄을 물에 던져 터트리면 고기들이 하얗게 떠올라 고기를 건져오곤 했어요. 하루는 아이들이 물에 던져도 수류탄이 안 터지니까 다시 건져 왔어요. 또 던져도 터지지 않으니 이번엔 수류탄을 돌에 던졌어요. 그때 평하고 터져서 구경하던 아이들이 많이 다쳐서 구루마로 실어서 중앙병원으로 옮겨 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중앙병원은 시내 아구찜 골목에 있었어요. 동네에 6.25 때 다친 상이용사가 한 분 있었어요. 나라에서 보상이 없으니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분을 못 참아서 동네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어서 동네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우는 아이에게 “상이용사 온다!” 하

면 울음을 그쳤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상이용사가 술을 먹다가 싸움이 났어요. 우리 오빠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급소를 때리니까 쪽 뺨이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아들이 사람 죽였다고 했지요. 오빠가 걱정 말라고, 금방 깨어날 거라고 했는데 얼마 안 가 상이용사가 진짜 깨어나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 세 사람이 팔을 뻗어 둘러야 할 정도로 컸던 마을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머슴들이 쉬고 아이들이 놀던 곳이었어요. 당산나무 밑에서 우리들이 땅따먹기를 하고 있으면 머슴들이 우리를 보고 웃곤 했어요. 머슴들 소원이 돈 벌어서 나중에 땅 사는 거였거든요. 또 순천시내에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원장님이 환자들 50여 명을 데리고 바람 쐬어 주러 그 당산나무 아래로 출서서 오곤 했지요. 원장님이 아코디언을 연주하면 환자들이 음악소리에 맞춰 따라오고 우리 아이들도 그 소리가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춤도 췄던 기억이 나요. 안타깝게도 그 나무는 62년 수해 때 떠내려가 버렸어요.

평촌마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정겨운 풍경들

평촌마을에는 가게 같은 것도 거의 없었어요. 한약방이 하나 있었고 이발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칠성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어이 칠성이 머리 좀 깎아 주소” 하곤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그 집 아들 이름이 칠성이인 줄 알고 “칠성이 아버지, 나 머리 좀 깎아 주세요” 해서 “예끼, 이눔!” 했대요. 돈 벌 어먹으려고 마을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발이라고 해봐야 ‘차갓집 삼촌 별초하듯’ 하는 수준이었지요. 잘하는 사람 같으면 시내로 가서 이발소를 했을 것인데 바리깡으로 대충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시내로 가서 이발을 했고, 저는 어릴 때 머리술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가위를 가지고 와서

짜아줬어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를 가는 것이 용납이 안 됐어요. 가고 싶어도 못 다녔지요. 친구가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 갔어요. 그때만 해도 여기는 거의 유교였어요. 조상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 집이 종갓집이었는데 제사만 해도 1년에 13개여서 우리 어머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사를 치르면 그날은 온 동네 잔칫날이었어요. 먹을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윤씨 집안은 시제도 같이 지냈어요. 시제를 지낼 때는 동네에 노인 있는 집에 새벽부터 음식을 갖다 날라 줘요. 마당에 덕석을 깔아놓고 오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했고요. 배고픈 시절이니 술도 큰 독에 해놓으면 금세 없어져 버렸지요. 그러니 교회 사람들이 평촌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오긴 했어도,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못 가게 했어요.

순천만 쪽에서는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순천만에서 대통에다가 솜을 뭉쳐서 석유로 불을 붙여 계를 잡는 모습인데 멀리서 보면 도깨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 도깨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하면 엄마가 웃으면서 계를 잡느라고 불을 피워서 다니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캄캄하니까 사악스러운 사람들이 술바람에 집에 오다가 도깨비 만나서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괜히 술바람에 넘어져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도깨비 봤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순천에 국도극장, 중앙극장이 있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극장을 잘 안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능적으로 재주꾼들이 많아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었어요.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 몇몇이 시나리오를 쓰고 외워서 추석이나 설에 우리집 마당에다가 동네 와상을 20여 개 붙여서 포장을 치고 연극을 했어요. 무대에서 비료 포대로 옷을 만들고 모자도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렵던 시절이지만 마음 넉넉했던 마을

우리 평촌 사람들은 어업은 안하고 농사만 지었어요. 그대로 물고기 구하는 방법은 많았어요. 해룡면 해창 배가 오림마을 앞 보 있는 데까지 들어와요. 보 하나를 두고 시냇물과 바닷물이 만나는데, 거기로 해창 배가 고기를 싣고 들어와서 쌀하고 바꿔서 갔어요. 그 외에도 동천에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논에서 우렁이랑 미꾸라지가 많았어요. 가을에 나락을 다 추수하고 나서 보의 물을 빼면 메기, 새우랑 갖은 물고기가 썩 깔려 있어서 집집마다 물고기를 퍼갔던 기억이 나요. 특히 미꾸라지가 엄청 많았어요. 집집마다 추어탕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해서 붕어랑 메기를 많이 잡아왔어요. 쫓고추, 빨간 고추 썰어 넣고 민물고기 잡아서 검은 술단지에다 한번 끓이면 세 끼 정도는 포식을 했지요. 또 동천에서 목욕하다가 보면 발밑에 있는 갯조개(재첩)가 바가지로 하나 나와요. 그것을 건져 와서 삶아서 그 물에 수제비 떠서 먹고, 칼국수해서 먹고, 바지락은 알을 까서 회를 무쳐서 먹곤 했어요. 먹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이지만 감나무가 집집마다 있어서 따 먹었고, 가난한 집 사람들은 감을 따서 팔아서 고추 산다고 못 먹게도 했지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집 감나무 감을 아무나 따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면 밥해서 먹이고 푸성귀 몽땅 넣고 밀가루 조금 넣어 된장으로 간을 해서 솔뚜껑에 째째한 찢전을 부쳐서 이집 저집 갖다 주고 했어요.

우리 아래채에 살았던 윤교장이란 분은 일본의 명치대학을 나왔다고 했어요. 한국사람은 합격을 잘 안 시켜줬는데 그 분이 명치대학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조센징이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일본 신문에 나오기도 했대요. 나중에 여기에 와서 한문도 가르치고 일본 글도 가르치고 해서 윤교장 선생님이 라고 불렸어요. 마을에 서당은 없었지만 훈장 선생님 역할을 해준 분이었죠.

참봉머슴과 호열자병 이야기

어느 가난한 농부가 우리집에 어린 아들을 지게에 지고 찾아왔어요. 농부는 우리집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이라고는 올 때 지고 온 지게 하나만 놓고 어린아이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어린 아들도 우리집 머슴으로 살았는데 성인이 되어 우리 어머니가 장가를 보내준다고 해도, 자기 아버지 같은 신세로 살기 싫다면서 장가 안 가겠다고 하고 일만 열심히 했어요. 우리집에 땅이 많아 머슴도 많았는데 머슴들도 체계가 있었어요. 상머슴, 중머슴, 달머슴(달로 고용된 머슴), 젓머슴(어린 머슴)이 있었는데 죽은 농부의 아들한테 우리집에서는 참봉머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벼슬자리 이름이 잦아요? 머슴 중에 대장이라고 참봉으로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 참봉머슴이라는 분이 우리집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고 우리 형제간들도 다 업어서 키워줬대요. 그러다 1950년대에 전국에 '호열자병'이라는 전염병이 퍼졌는데, 곧 죽을 병으로 통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 집에는 새끼줄을 쳐서 왕래하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았대요. 우리집 아래채가 커서 온 동네 머슴들이 일이 끝나고 저녁이면 거기 와서 놀다가 자곤 했는데 호열자병이 돌자 아래채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오더래요. 참봉머슴이 호열자병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밥해 주러 오는 식모도 병 옮을까 무서워서 안 오더래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가 직접 죽을 써서 사랑채 문을 열고 넣어주고 참봉머슴이 똥을 싸면 치워주고 옷을 넣어주고 그랬대요. 머슴이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가 직접 병간호를 했대요. 주변에서 병 옮는다고 아무리 말려도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 자식들한테 덕이 돌아갈 거다 싶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 해줬다고 해요. 참봉머슴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분이 쉰 살쯤 되었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 초상을 치르려고 하니까 아

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는 애가 티졌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최센, 이리 좀 와보시오. 우리집에 농지가 좋은 것이 있소” 하니 최센이 땅을 싸게 파는 줄 알고 좋아서 퍼뜩 따라오더라고요. 집으로 와서 어머니가 술상을 가득 차려주고 최센이 지나하게 취하자 “사랑채에 참봉이 죽었다 단 말이네. 아이고 어쩔 거요. 나하고 들어서 초상을 치릅시다” 하자 최센이 술김에 “그래봅시다” 대답했대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옷을 농에서 꺼냈어요. 바지랑 무명 흰 바지와 저고리를 가지고 와서 참봉머슴에게 입히고 두루마기까지 입혀 드렸대요. 널(관)도 살수가 없어서 창고에서 덕석을 꺼내 시신을 얹어 놓고 새끼줄로 몇 번을 묶어서 지계에 싣고 오산마을 옆 조그마한 야산으로 가서 묻었대요. 그 야산은 선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문드문 묘를 쓰는 자리였다고 해요. 최센이 지계에 짊어지고 앞서가고 우리 어머니는 팽이랑 삽을 들고 뒤따라가는데, 최센이 부르는 육자배기 신세타령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봉아, 참봉아! 이 사람아, 아버지 지계 타고 이사장집에 오더니 지계 등짐 지고 고생 고생하다가 장가 한 번도 못 가보고 이렇게 떠나는가! 자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지계 타고 북망산천 가는 자네가 불쌍하네, 불쌍하네” 하고 애절하게 부르더라고요. 어머니는 뒤에서 눈물을 자꾸 흘리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최센이 술에 취해 다리고 꼬여서 시신을 지계에서 떨어뜨려서 우리 어머니가 “내 머리에 받쳐 주시오” 하고 시신을 머리에 올렸는데 도저히 다리가 펴지지 않아 다시 최센이 혼자 지계에 메고 올라갔대요. 참봉머슴 시신 거두면서 호열자 걸려서 죽을 거라 했는데 하늘이 돌봤는지 두 분 다 오래 사셨어요. 85세까지 살다 가셨어요.

호열자병은 지금은 콜레라라고 해요. 당시는 전염도 잘 되고 약은 귀하니 엄청 무서운 병이었지요. 집안에서 매운 고추를 숨이 막힐 정도로 태워서 병균을 없앴다고 하고 약이 귀해서 약 대신 막걸리를 먹으면 소독이 된다고 해서 아이들도 막걸리를 먹었대요.



순천만국가정원 안 옛 마을터에서 윤자 시인



평촌마을 망향비에서

동천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왔다 흘러가는 평촌마을

다들 농사를 짓긴 했어도 부잣집 몇 집에만 소가 있었어요. 트럭이나 차 같은 건 아예 없었고 말 구루마, 소 구루마만 있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평촌을 나올 때까지도 자동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구루마라도 있는 집에서는 장날이면 쌀

을 장까지 운임 받고 끌어다 주고 했어요. 운임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쌀로 대신 주기도 하고요. 장에 가서도 꼬막, 바지락, 갈치 장사들한테 쌀 퍼주고 바꿔 먹고 했어요. 품앗이로 남의 집 일해주면 그 대가로 소를 빌려가곤 했어요. 소 빌려가서 일을 하면, 꼴 베어다가 소 먹여서 다시 데려다 줘요. 소먹이로 짚을 작두에다가 종종 썰어서 왕겨하고 섞어서 삶아서 소를 먹였어요. 돼지도 좀 키웠는데 잔치가 있으면 돼지를 잡았어요. 아이들 시집, 장가보내면 혼수를 만 원어치 한다고 하면 잔치는 이만 원어치를 했어요. 경상도는 실속 있는 걸 좋아해서 잔치가 김소한테 전라도는 잔치를 크게 했었지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가난한 집에 초상이 나서 돼지를 잡았는데 며느리가 돼지고기를 몰래 떼어 먹었대요. 송장을 놔두고 시어머니가 “영감, 영감. 우리 영감 불쌍허요. 이렇게 떠날 줄 모르고” 곡을 할 때 몰래 먹은 돼지고기가 체했는지 며느리가 방구를 꿰었는데 냄새가 얼마나 독했는지 어머니가 곡을 하다가 “꾸롱내야, 꾸롱내야. 독허요, 독해!” 하니까 신랑이 알아차리고 “초상 치고 두고 보자, 이년!” 했고, 며느리는 “나오는 방구 어찌라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말 좀 하시오”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평촌마을 사람들은 동천 냇물이 너무 맑아서 냇물을 길어다 먹고 살았어요. 물고기도 참 많이 살았는데, 그때는 동천에 물이 출렁출렁 많아서 50년대 언젠가는 마을 앞에 보트장이 들어왔어요. 시내 사람들이 보트장에 놀러 와서 풍기문란을 일으키니까 어른들이 항의해서 없어졌어요. 청소년들 잘못된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식당을 하든지 뭘 해서 돈을 벌어서 먹었으면 농사를 짓는 것 보다 더 나았을 텐데 여기 사람들이 돈을 몰랐어요.

3) 배상우 선생님

고향마을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집 사람하고 가끔 국가정원을 한 바퀴씩 돌다 보면 ‘아! 여기가 내가 태어난 동네,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망향비를 세우고 우리 이름을 새겨 놓은 것으로도, 다음에 자식들이 와서 보고 ‘여기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태어난 고향이구나’ 할 수는 있잖아요. 여기가 옛날에 아버지가 살았던 동네고 아버지 이름이 남겨져 있다고 한 마디만 할 수 있어도 행복하죠. 망향비 세울 때 20만 원, 30만 원씩 마을주민들이 다 냈어요.

옛 마을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친구들과 놀았던 추억

자치기랑 술래잡기, 또 남자들은 장난감 총 하나씩 들고 총싸움을 하거나 여자들 고무줄 놀이하면 고무줄 끊어먹으면서 놀았죠. 명절 때 되면 용돈 받아서 삼치기도 하고. 요거 짤짤이라고도 했죠. 건너편 마을하고는 싸움도 많이 했었죠. 진짜 돌 던지기, 돌싸움을 해요. 지금 마을 앞에 수문이 있잖아요? 수문이 지금 개량공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게 막아놨는데 그때는 그리 다녔어요. 비가 와서 물이 넘치면 못 다니지만, 물이 적을 때는 발아래 수문으로만 물이 흐르니까 그리 왕래를 했죠. 그 수문 건너편 오림마을 애들하고 우리는 앙숙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진짜 돌 던지고 피 터지게 싸웠다니까요.

겨울에 얼음이 두껍게 얼면 얼음 위에서 공도 차고 얼음 깨서 얼음배를 만들어 타고 다녔어요. 대나무로 손잡이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중앙국민학교 앞까지가 다 물이잖아요. 겨울이면 얼음 타고 학교 가고 얼음 타고 집에 오고 그랬죠. 썰매도 많이 만들어서 타고 다녔어요. 스케이트 같은 칼날이 아니고 두꺼운 철

사로 감아서 칼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철사만 있으면 쉽게 만들어
요. 앞은 썰매도 있고 발 썰매도 있었는데 발 썰매는 앞부분을 좀 파내서 발을
올리고 고무줄로 묶어서 타요. 밑 부분에 철사를 두 개 대고 뒤에 못을 두 개 더
박아서 브레이크를 걸게 했어요. 앞날을 세우면 못이 얼음에 걸리면서 그제 브
레이크 역할을 했죠.

또 한신아파트와 금호아파트가 있는 곳에 비행장 활주로가 있고 3층 정도 되
는 폐건물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중앙국민학교 가는 길에 있다 보니 학교 안 가
고 놀 때는 거기서 놀았죠. 딱 숨기 좋아요.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었지만 우리한테는 재미
있는 일이 생기는 날이에요. 일단 학교를 안 갔고요. 그때는 지금 같이 장례식
장이 아니라 집에서 3일장 장례를 치렀는데 거의 2박 3일 밤을 새게 돼요. 그
럼 온 동네가 다 같이 밤을 새요.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서 놀고. 그때 팔죽을 쑤
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상갓집에서는 팔죽을 끓여
밤마다 먹었어요. 또 상여를 따라 만장기가 나가요. 깃발 들고 상여를 따라가면
500원씩 줬어요. 마을 어른들이 앞에서 상여를 메고 어린애들은 만장기를 한
10개씩 가지고 뒤따라갔어요. 돈이 귀할 때라 그거 받으려고 학교를 안 갔죠.
그게 아니더라도 그때는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당연히 학교 안 가는 줄 알았고.

물난리에 대처하는 마을주민들의 자세

비가 많이 오면 동네사람들은 짐 싸서 중앙국민학교로 피난을 갑니다. 잘 사
는 집은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리어카에 싣고 피난을 갔죠. 기억나는 횃
수로 따지면 한 대여섯 번 됐을까. 인제동 C지구에 사는 이모집으로 가든지 중
앙국민학교로 가든지 했어요. 1962년 큰 수해에도 우리 마을에 인명피해가 적

었던 이유가, 평소 하도 물에 자주 잠기니까 비가 좀 온다 싶으면 미리 대비하고 피난을 갔기 때문이에요. 비가 그치고 이틀 정도 지나면 마을에 물이 다 빠져요.

비가 많이 올 때가 주로 이제 막 모내기를 해냈을 때고, 수확기 때는 태풍에 비바람이 쳐서 벼를 다 넘어뜨렸죠. 지금은 벼도 품종개량이 돼가지고 덜 넘어가요. 그때는 벼 품종개량이 되기 전이라 벼가 길고 약했어요.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마을에 와서 벼를 묶어서 세워주기도 했어요.



정원 조성 전 평촌마을(풍덕동 주민자치회 제공)

시내와 가까우면서도 멀었던 시골마을

평촌에는 지금 하풍 자리로 이주하기 직전까지도 수돗물이 안 들어왔어요. 동천 물을 길어다 먹다가 나중에 수도가 생겼지만 수돗물은 아니었어요. 동천 물을 모터로 올려가지고 물탱크에다 넣고 소독약으로 정화해서 집집마다 파이

프로 물을 보내는 수도였지요. 또 교통이 아주 불편했어요. 버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전거, 경운기, 리어카만 좀 있었을 뿐이고요. 동천 건너는 다리도 없었어요. 낮고 폭이 좁은 간이 다리 정도가 하나 있었는데 비 많이 오면 넘쳐서 건너지를 못했어요. 평상시에는 보나 그 다리로 다니고, 신산마을 사람들이 이쪽으로 농사 지으러 오려면 풍덕교 쪽으로 돌아다녀야 했어요. 그래도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많아서 재미있었어요. 우리 동갑만 해도 7~8명 됐을 거예요. 거리가 꽤 됐지만 친구들과 놀다 보면 금방 학교에 도착했어요. 고등학교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죠. 금당고등학교까지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동네에 새들이 많았어요. 새를 잡으려고 어른들이 싸이나(시안화나트륨, NaCN, 청산가리 등)라고 하는 독극물을 냈어요. 싸이나를 새들이 먹고 죽으면 그걸 가져다가 탕 끓여 먹었어요. 지금은 독극물 그러면 당장 발암물질이다, 뭐다 그런 것 때문에 멀리하잖아요. 새가 먹었으면 그 새를 먹은 사람도 위험할 것인데 그런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흑두루미도 많이 날아왔을 텐데 그때 봐도 잘 몰랐겠죠. 새는 그냥 대부분 청둥오리라고 생각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날아가는 새를 보고 흑두루미인지 저어새인지 그때는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그냥 오리, 청둥오리 그런 종류인 줄로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 참게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순천만에 사는 칠게 말고 발가락에 털이 있는 참게. 물이 빠지면 장어가 구멍을 파 놓는데 그 구멍에 참게가 들어가요. 그러면 철사를 기역자로 꺾어서 나무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구멍에 집어넣으면 게가 꼬집어낼 수가 있었죠. 또 장어도 많이 잡았죠. 물이 빠질 때 장어 구멍이 보이면 앞을 막아야 돼요. 도망 못 치게. 흙으로 막아 놓고 꼬챙이를 넣어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자라. 자라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 둑으로 올라오거든요. 둑 옆에 모래가 많은 지점에다 굴을 파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자라는 그냥 가지고 놀려고 잡았던 것 같아요.

동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고기 잡는 배가 있었는데 한 사람 딱 탈 정도로 작은 배였어요. 오후에 그물 쳐 놓고 아침에 그물 걷는 식으로 붕어, 가물치, 메기 등을 엄청 잡았어요.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고 시내 사람인데 허가를 받아서 잡았어요.



1970년 평촌마을- 동천에 모래가 많은 것을 볼수 있다.

동네에서 말을 자주 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동천에서 모래를 파서 지게에 지고 독에다 갖다 놓으면, 건설업자들이 말 등에 사각 통을 싣고 와요. 거기에 삽으로 모래를 퍼 담아주고 얼마씩 받죠. 모래 소유주는 따로 없었던 터라 수고비 정도를 받는 거였어요. 지금 꿈의 다리 그 밑 모래가 최고로 좋았어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빨리고.

4) 하풍 경로당 어르신들



하풍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대화

구상나무 : 평촌마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요. 평촌이란 이름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르신1 : 원래 평평할 평(平)을 썼던 게 아니라 마름 평, 올밤 평을 써서 평촌(萍村)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평촌(平村)이라고 썼어요.

어르신2 : 옛날, 수해 나기 전에는 우물물보다는 냇물을 많이 먹었어요.

어르신3 : 우물이 없어가지고 새벽 일찍허니 아낙들이 냇가에 가서 물을 떠왔어.

구상나무 : 동천물 말씀이세요?

어르신1 : 옛날에는 동천 냇물을 먹고 살았어요.

어르신2 : 깨끗한 물 먹는다고 새벽에 와서 이고 나르고 빨래도 하고, 동천 보에서 빨래도 하고 그랬어요.

어르신3 : 일상생활은 다른 마을하고 비슷할 거예요.

어르신1 : 명절 때 되면 줄다리기도 하고 뭐 다 그랬죠, 뭐. 마을을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서 줄다리기해서 이기면 신나서 술 먹고, 지면 속상해서 술 먹고 놀았지요.

구상나무 : 거기 사셨던 분들은 다 농사만 지었나요?

어르신1 : 그렇죠. 그때는 거의 다 농사 지었어요.

구상나무 : 옆에 동천이 있고 순천만도 가까운데 어업은 안 하셨나요?

어르신1 : 어업이란 건 거의 없고 그때는 장어, 참게 또 메기 그런 게 많아서 그냥 잡아서 먹는 정도였어요.

어르신4 : 마을까지는 실장어가 잘 안 올라오고, 저 아래 도축장 옆에 보가 있는데 거기서 잡았어요.

어르신1 : 지금인게 실장어를 팔고 그러제 그 전에는 실장어는 잘 안 잡았어. 굵은 장어를 잡지 누가 실장어 잡고 그러요.

어르신2 : 겨울에는 지금같이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얼음이 두껍게 얼어요. 그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어요. 시중에서 파는 스케이트가 아니고, 나무에 철사 끼워서 손으로 만든 스케이트.

구상나무 : 순천만국가정원 한방체험관 앞 보에 새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옛날에도 새들이 많았나요?

어르신1 : 지금인게 두루미고 뭐고 날아오지 옛날에는 거의 참새였어.

어르신3 : 처마에다 집 지어가지고 많이 살았어요. 참새들도 많고 제비도 많고.

구상나무 : 80년대 초 마을에는 초가집들이 많이 있었나요?

초가집은 별로 없었제. 스텐트 지붕에 살았제.

구상나무 : (1962년 대수해 이후)80년대 초에도 큰 물난리가 났던데요?

어르신3 : 82년.

어르신4 : 82년에 수해가 나? 62년이제.

구상나무 : 62년에 한 번 수해가 났고 80년대 초 이주하기 전에도 났다고 하던데요?

어르신1 : 맞아요. 62년도에 수해가 났고 그 뒤에 수해가 또 한 번 났어요. 그때는 좀 덜했지요.

구상나무 : 그때 이후로 더 이상은 마을을 복구하기 힘들어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르신1 : 62년 8월 28일인가 수해가 났을 때 그때 이사를 할라고 했는데 거의 다 여기 토배기들이니 노인들이 엉간해서는 안 옮길라 그랬어.

어르신5 : 직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가 전업이다 보니까 문전옥답 아납니까? 가까운 데서 농사 지어야지요. 멀리 갈 수 없잖아요.

어르신1 : 그 다음에 수해가 또 한 번 나면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 아이고 우리도 좀 살기 편한 동네로 옮겨보자 그래서 추진을 해서 이 앞에 공덕비도 있듯이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구상나무 : 1962년 수해 때 평촌마을의 피해는 어땠나요?

어르신2 : 그때 우리는 군대 막 제대하고 왔을 때여. 감나무에 아이들 올려놓고 또 큰 기와집 지붕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동네사람들 부축해 주고 이불도 갖다 주고 그랬지. 이불도 다 젖은 이불.....

어르신5 : 그 집이 윤씨 종가집인데 기와집이 아주 컸어요. 기와집이 아주 커. 지금 아마 순천에 그런 집이 있으면 문화재지 문화재.

어르신3 : 기억자로 지어진 집인데 학교가 없었을 적에 서당집이었어요.

어르신5 : 그 집 살던 사람들이 망해서 집 팔아먹고 마을을 떠난 뒤에 사람이 안 사니까 헐어졌는데, 지금 순천에 그런 집이 있으면 보존해서 문

화재가 될 만하지.

구상나무 : 1962년 수해 때 주민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어르신3 : 평촌마을에서는 한 사람 죽었어. 왜 죽었냐면 말을 못했어, 죽은 사람이. 즈그 딸이 자고 있었는데 피신을 하고 뒤에 가본게 가이네가 한 대여섯 살 먹었을까. 죽어 있어.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를 안 델꼬 가서 죽었어. 그때 수해가 났을 때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살았으면 나이가 한 칠팔십 살 된다고 봐야지.⁽²⁾

어르신5 : 여기는 수해 난 뒤에 어디로 많이 가셨냐면 C지구, 글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정부에서 집 지어가지고 C지구로 이주를 시켰지.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

어르신3 : 그때 순천에서 사람 많이 죽어서 시체가 많이 떠내려갔어.

구상나무 : 평촌마을에 당산나무 같은 건 없었어요?

어르신1 : 당산나무도 수해 때 떠내려가부렸어요.

어르신2 : 그 어디냐면 순천만국가정원 안에 네덜란드정원 있죠? 그 옆 냇가에 있었어. 느티나무였는데 나무가 크고 아주 좋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크고 좋은 나무가 없었는디 떠내려가버렸어.

구상나무 : 그 뒤에 다시 나무를 심거나 제(祭) 같은 건 안 지내셨나 봐요?

어르신2 : 그런 건 없었고 당산나무 말고도 팽나무가 하나 있었지. 보 있는 데에. 느티나무보다는 작았지만 윤씨네 종가집 사랑채에 있었어.

구상나무 : 진짜 윤씨들이 많긴 많았나 봐요. 어떤 분이 동네사람 중에 한 70%는 윤씨였다라고 그러시던데요?

어르신1 : 원래가 윤씨 자자일촌 집성촌이었어요. 세월이 가면서 이 집, 저 집

(2) 이 부분은 윤만태 교장선생님의 말과 다르다. 윤만태 교장선생님은 2학년 여자아이가 친구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고 말했다.

(다른 성씨들이)들이 모여든 거지요. 처음에는 100%였제. 차츰 세월이 가면서 윤씨들이 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도 윤씨들이 대부분이었어.

구상나무 : 저기 오산 밑에 신산마을에 대해선 잘 모르세요?

어르신1 : 신산마을요?

어르신2 : 신산마을은 유래가 얼마 안 돼요. 오산마을은 100년도 안 돼요.

어르신3 : 거가 밭이었어. 옛날엔 바다였는디 물이 빠진게 밭이 됐어. 배밭이라 그래.

어르신2 : 오산마을에서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분가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멀리 안가고 분가시켜 몇 호 안 돼요.

어르신3 : 오산마을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평촌마을은 450년 됐는디.

어르신2 : 윤씨들이 평촌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저쪽 오림 쪽으로 왔어요. 윤씨들이 그쪽에 와서 살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거기서 살다가 농사 지으러 다니려니 냇물을 건너야 해. 건너다가 한 사람이 빠져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넘어 온 거야. 그래서 평촌마을이 생긴 거야.



강 위쪽 평촌마을과 아래 오림마을(김학수 제공)

어르신3 : 원래 저 산 밑에, 저 건너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요짜 뜰에 모
를 심으로 오다가, 문짝 같은 배를 타고 오다가 한 사람이 빠져 실
종돼갔고 그 뒤로 요 너머로 평촌마을이 생겼어요.

구상나무 : 그게 450년 되었단 말씀이지요?

어르신3 : 이쪽으로 온 지는 350년 됐어요. 저긴 한 450년 되고 처음에.

어르신1 : 어른들 말로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기록으
로 남겨 놓은 것도 아니고.

어르신5 : 설령 기록해 봤다 해도 62년 수해 났을 때 많이 떠내려갔겠쥬. 유
실돼부렸쥬.

**구상나무 : 예전에 가구 수가 많았으면 애들도 많았을 텐데 학교는 어디로 다
녔어요?**

어르신1 : 학교요? 중앙국민학교.

구상나무 : 그렇게나 멀리요?

어르신1 : 중앙국민학교는 가까운 거여. 옛날에는 저기 향교 있는 데로 땡겼어.

어르신3 : 한천공장 있는 데 서학교라 있어요. 나중에 승평국민학교가 된.

어르신4 : 남교에서 쪽 올라가면 지금은 (옥천)현대아파트 있죠? 거기가 옛날에는 한천공장이 있었는데, 국민학교를 거기까지 다녔어요.

어르신1 : 처음에 남교 다니고 동교(성동초) 다니고 하다가 그 뒤에.

어르신3 : 중앙국민학교가 여기로 온 지는 얼마 안됐어요. 승평국민학교가 현재 자리로 이사 오고 나서 조금 있다 중앙국민학교로 바꿨어요.

어르신1 : 그 전엔 학교가 없었게 쩌 한천공장 옆에까지 학교를 다니고 했어요.

어르신2 : 남교 지나서 용수동 삼거리, 지금 현대아파트 거기로 다니고 향교로도 다니고.

어르신3 : 국민학교 들어가면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써놔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짚어야 합격이제. 학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어. 지금은 반대여. 안 갈라 하면 학교에서 잡아가.

구상나무 : 중학교는요?

어르신4 : 중학교는 자기가 알아서 가고. 중학교도 똑같지. 어려서 추억을 생 각해보면 옛날 분들은 겨울철에 냇가가 얼어가지고 스키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어요.

구상나무 : 그때는 순천 겨울 날씨가 꽤 추웠던가 봐요.

어르신1 :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어르신2 : 물이 오염이 안 됐을 때니까 얼음이 많이 얼었고, 지금은 물이 오염 돼버려서 잘 안 얼어.

구상나무 : 우물이 없고 냇물 받아서 살았다고 하셨는데 수도는 언제쯤 들어

왔어요?

어르신2 : 수도라기보다도 지하수. 아, 지하수 전에 보 밑에다가 모터로 물을 끌어 올려다가 물탱크에 받아서 생활한 적도 있어요.

어르신1 : 지하수랑께. 그께.

어르신3 : 그께 펌프라고. 파이프를 박아서 모터로 퍼 올려서 쓰다가, 나중에 물탱크가 생겼어.

어르신2 : 전기가 들어오면서 물탱크에 받아서 썼어.

구상나무 : 전기가 언제 들어왔어요?

어르신5 : 사실 우리 동네가 문화혜택을 늦게 본 동네여. 왜 그냐면 오천에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동네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

어르신3 : 52년 됐다고. 52년 전! 전기 들어온 지가 52년 됐다. 계순이가 손돌인디 계순이 태어났을 때 전기가 들어왔어.

어르신1 : 저 평촌 동네에 펌프를 왜 못 박았냐면 평촌 동네 터가 배터가 되 갖고 만약에 구멍을 뚫으면 배에 물이 올라온다 그래갖고 못 하게 했어. 온 동네 사람들이 냇물을 떠다 밥을 해 먹었는디 그렇게 해 먹으면 밥이 좋았어.

어르신2 : 물이 깨끗해. 옛날에는 물이 좋았지. 그놈 떠서 우리가 목고 그래서 건강해.

어르신3 : 냇물을 먹고 90살까지 사는 거여.

구상나무 : 말씀 중에 ‘배터’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배터가 뭐예요?

어르신1 : 아, 터가 배 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어르신2 : 배. 마을 형이 배 같이 생겼다고.

어르신3 : 배에다 구멍을 뚫어볼면 안 되잖아요?

구상나무 : 도깨비 이야기도 해주시죠.

어르신3 : 그때가 62년도 8월 수해나고 이를 지났을 때여. 성동이가 뒷집에 살고, 앞에 큰 기와집 하나가 있고 내가 그 앞에 살았어. 동네 한 가운데에 있던 그 기와집이 수해에 파손이 돼서 우르르 무너졌어. 왜 그렇게 되었냐면 수해 때 높은 자리로 피해야 하니 사람들이 전부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갔어. 그때 마을에 기와집이 저기 밖에 없어. 그래서 기와집이 다 무너졌어. 근디 거기서 무슨 도구떼 소리, 옛날 방아 찧는 도구떼 소리가 나. 그래서 나가보니까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서 집에 와서 잘라 하니까 또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성동이 집으로 요리 돌아서 갔어. 성동아 뭐시 통통 소리가 나다가 나가면 끊기고 그리 한다고 하니까 “도깨비다” 그려. 그래갖고 가만 보니까 가면 소리가 나고 그래. 이것이 노인들 이야기들 들어보니 도깨비라 하드만요. 도깨비구나. 그래서 우리가 도깨비 방아 찧는 소리를 바로 들어봤제. 우리 동네 앞에 물방앗간이 하나 있었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다리를 건널라 하면은 도깨비한테 잡혀가고 그랬어.

어르신1 : 씨름을 해갖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전두석 씨라고 큰아버진가 작은아버진가 그 양반이 죽었어. 도깨비하고 씨름하다 죽었어.

어르신2 : 전두석이 즈그 아버지.

어르신1 : 새벽에 지게로 나락 가마니라고 그놈을 짊어지고 가는데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방아 찧으러 가는 사람을 잡고 씨름을 하자고 해. 그래서 방아도 못 찧고 자빠져갖고 아파갖고 영영 돌아가셨지. 그래서 도깨비하고 싸웠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구상나무 :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요. 도깨비하고 씨름이 아니라 밤새 실랑이 하다가 앓아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

아버지가 항상 약주를 많이 하셔서 아무도 도깨비 이야기를 안 믿
었지요.

어르신2 : 이야기를 듣고 그걸 느꼈지. 항시 도깨비랑 잡귀가 있어.

어르신3 : 잡귀는 있어. 수해가 났을 때 군대생활 상병 뎀디 밤 10시에 이북
방송에서 남한 순천이 물바다가 되었다고 나왔는데 뭘 소리여 글
고 있었제. 아침 6시가 되께 사단 사령부 앞으로 전라남도 순천 출
신 모여라 해서 간께 돈, 지금 돈으로 한 2만 원을 주고 (휴가증에)
싸인을 해줘. 막 집으로 오니깐 전부 다 중앙국민학교 교실에 게시
드만. 거기서 한잠 자고 나온께 온 동네 사람들이 방아를 찧고 쿵
닥쿵닥거려. 그래서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여기 다 내려오셨는갑
네요” 근께 “야, 이놈아. 잡귀가 와서 근다!” 그래. 내가 군대에 가서
통이 컸거든요. 집 뒤로 가본께 잡귀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

II. 신산마을

1. 신산마을의 역사

1) 마을의 유래

신산마을은 오산마을 앞에 형성된 마을이다. 약 400년 전 오산마을이 형성되었고 계재(蟹山) 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하천 제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강물이 흐르면서 하천 퇴적토가 쌓여 비옥한 사질양토의 포전(浦田)이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오산마을 주민들은 자녀가 결혼을 하면 마을 앞 비옥하고 농사 짓기에 편리한 신산마을로 살림을 내주었다. 이렇게 27호의 신산(新山)마을이 형성되었다. 성씨로는 동북 오씨, 옥천 조씨 등 4개 성씨들이 살면서 포전에서 1년 3기작 이상 양질의 채소를 생산하여 순천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근면성실로 근처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 되기도 하였다.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신산마을은 1989년 하천 제방이 붕괴되는 수해를 입어 순천시의 배려로 도사동사무소 인근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집단 이주하게 되었다.



2) 지형

동천 중하류의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예전에는 동천이 오산마을 앞으로 흘렀고 신산마을터는 나루터 자리였다. 땅을 파보면 양질의 모래가 많이 나왔고 배수가 잘 되어 땅이 비옥했다. 밭에서는 채소를 주로 키웠는데 3기작 이상 가능했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 한국정원 밑으로 흐르는 도랑은 철쭉정원 올라가는 데크 아래로 이어지는데, 정원 조성 전에는 동천까지 이어져 있었다.

3) 마을 변천사

400년 전 형성된 오산마을 사람들이 신산마을로 저금을 내면서⁽³⁾ 100년 전 신산마을이 형성되었다. 27가구가 살다가 1989년 침수로 현 호현마을로 집단이주를 하였다. 그 후로는 실만한교회와 공장, 목재소 등이 들어섰으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과 함께 마을이 사라졌다.

(3) '저금내다'- 자녀가 결혼해서 살림을 따로 차려준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

〈사진으로 보는 신산마을 변천사〉



1948년



1970년



1979/80년



1985년



2010년



1990년

순천시청 홈페이지 지리교통, 공간정보, 순천시 생활지리 정보시스템, 항공사진

2. 키워드

계재(기재)

오산마을의 옛 이름은 계재(蟹山)다. 마을에 계가 많이 올라와서 계재라 하였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계 해(蟹)'를 '개 오(獒)'로 잘못 썼고, '개 오(獒)'자가 쓰기 복잡하다하여 오산(五山)마을이 되었다 한다. 이는 동천 하천이 정비되기 전에는 오산마을 앞이 기수지역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 마을이 마치 계의 형상을 닮아서 계재라고 했다는 말도 있다. 순천 지역에서는 계를 기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재가 기재가 되었다.

기재포전

신산마을은 포전(채소밭)이 대부분이었다. 동천이 오산마을 앞으로 흘렀고 이곳을 막아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래가 많은 땅이었다. 흙 밑에 모래가 많아 배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채소들이 잘 자랐다고 한다. 생산되는 채소들은 아랫장이나 역전시장에서 팔렸다. 기재포전 채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좋은 값을 받았다. 기재포전에서는 밭이랑을 나누어 시간차를 두고 같은 채소를 키우거나 다양한 채소를 키웠다. 열무, 고추, 가지, 배추, 무, 시금치 등이 주요 생산물이었다. 순천만국가정원 조성 당시 토지 보상 과정에서도 기재포전

의 미래가치도 같이 봐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강대굴

“지금의 순천만국가정원 한국정원이 있는 자리의 옛 지명은 ‘강대(康大)굴’이었다. 크고 편안한 곳이라는 뜻으로 유년시절부터 어머님에게 자주 들었던 말로, 세상사 버겁고 힘들 때 강대굴 풀쪽에 뗏장 두어 장 덮고 누우면 비가 온 줄을 아느냐, 눈이 온 줄을 아느냐? 제일 편안하다는 말인 즉, 사자(死者)가 편안하다는 공동묘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 생자(生者)가 편안한 곳인 궁궐정원, 선비의 정원, 그리고 소망폭포로 구성된 한국정원이 되었다. 그 옛날의 지명이 맞아떨어진 것만 같아서 참 좋다.” (정원해설사 고 오왕묵 님의 글에서 발췌)

이곳에는 정원 조성 전에 공동묘지가 있었다. 300기의 묘지가 있었고 평촌마을 사람들도 많이 이곳에 무덤을 두었다. 연고가 있던 묘들은 다 이장을 했고 무연고 묘는 순천시 소유의 황전면 양지바른 묘지로 이장하며 개초제와 산신제, 성토제를 지내는 등 최대한 예우를 갖추었으며 화강암으로 된 표지석을 세우고 표지석에는 묘의 일련번호, 이장 당시 묘지의 주소 등을 기재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연고자가 나타나면 이장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강대굴 분묘이장 안내

오산부락 새마을 농민회관

조사를 하던 중에 성가롤로병원 의료봉사 전시 사진 가운데 오산마을 사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새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이 진찰을 받는 모습이다. 이 마을회관에는 '새마을문고'가 있었다. 학생들이 여러 대회에서 부상으로 받아 온 책과 기증받은 책들을 모아두고, 마을 아이들의 도서관이자 공부방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옆에는 새마을공장이 있어서 가마나나 명석을 짜서 나온 수익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벽에 걸린 '영양개선의 집'이란 현판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식생활 개선과 농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응용영양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오산부락 새마을농민회관 영양개선의 집(성가롤로병원 제공)

엄나무

오산마을의 당산나무는 특이하게도 엄나무다. 엄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한자로는 자동(刺桐)·총목(槲木)·해동(海桐)이라 칭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사람들은 엄나무 줄기나 가지에 날카롭고 굵은 가시가 촘촘히 돌아나 있어 잡귀나 병마가 이 나무를 보면 무서워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고 한다. 엄나무의 가지나 굵은 줄기 혹은 엄나무 가지 묶음을 방문이나 대문 위쪽에 가로로 걸어 두거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를 엄나무가 많이 난 숲으로 데리고 가서 병이 낫게 해 달라고 기원하기도 하였다. 엄나무 가시가 잡귀를 쫓고 또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주력(呪力)을 지닌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산마을 엄나무는 현재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주민들 말로는 예전에는 당산나무 주위에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고 한다.



오산마을 당산나무 엄나무

도깨비

오산마을에서 호현마을로 가는 길에서 지금의 한국정원 아랫길에서 도깨비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도깨비가 가는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해서 이겨야만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이겨서 집에 돌아왔다가 아침에 가보면 도깨비를 묶

어 놓은 자리에 빗자루 몽둥이가 묶여 있었다고 한다. 평촌마을에서도 도깨비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

털고개(호현마을)

호현마을은 별량, 별교, 보성 쪽에서 순천으로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길목이었다. 시골사람들이 순천 장에 소를 팔러 왔다가 호현마을 색시집에서 소 판돈을 흘러당 다 털고 간다고 해서 호현마을을 털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현재 신산마을은 여기 호현마을에 새 터를 잡았다.

세월교

세월교(洗越橋)의 사전적 의미는 흙관(Hume pipe)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간이적으로 만든 소규모의 교량을 뜻한다. 하천에 흙관을 깔아 흙관 속으로 하천수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뒤, 시멘트를 위에 덮어 평평하게 만들어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하천 범람 시 물밑에 잠기기 때문에 하천수가 교량을 '씻어 넘어 지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관용어이다. 전국적으로 두루 분포되어 쓰이는 이름이며, '세월교'를 마치 고유명사처럼 다리의 이름으로 쓰는 곳도 있다. 고유명사로 쓰는 곳의 경우 '세월교(洗月橋)'라 쓰기도 한다.

지금 꿈의 다리 옆에 있는 세월교는 80년대 초에 건설되었다. 이전까지 오산마을과 평촌마을을 오갈 수 있는 방법은 보를 이용하거나 뗏목처럼 만들어진 다리가 전부였다. 그나마 비가 많이 오면 다리가 떠내려가 버려서 멀리 풍덕교까지 돌아가야 했다. 오산마을 사람들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유경현 씨에게 이리한 고충을 알렸고 다행히 사업비를 받아 주민들 스스로 울력을 통해 세월교를 건설하게 되었다.



세월교

설만한 교회

순천만국가정원이 조성 될 당시 신산마을에는 '설만한 교회'가 있었다. 교회는 350평의 땅에 2001년에 새 교회 건물을 완공하고 2011년 연향3지구를 거쳐 지금의 자리로 이주하였다. 이주 당시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200여 명이었다.



설만한 교회(다음 로드뷰, 2009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 포플러

지금의 순천만 국제습지센터가 있는 자리에 수령 45년이 된 포플러나무가 있었다. 나무가 크고 모양도 좋아 이 나무를 그대로 살려서 주위에 습지센터 건물을 짓거나 그게 힘들면 천장을 뚫어서라도 건물을 조화롭게 지으려고 노력했으나, 포플러나무의 특성상 꽃가루 알러지의 염려가 있어 실내에 둘 수가 없었다. 결국 국가정원의 동문 구역 일본정원 뒤로 옮겨 심게 되었다. 국가정원을 조성하느라 새 보금자리를 세심하게 신경 써주지도 못했는데 포플러나무는 이듬해 스스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났다. 나무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늘 한 자리에서 생명의 경이와 고즈넉한 미덕을 선사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 있다.



다음 로드뷰(2009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2021년)

3. 주민 구술채록 '마을 그리고 기억'

1) 조종현 사장님

신산마을 살았던 조종현입니다.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새로운 신(新)을 붙여서 불렀어요. 오산마을 사람들이 자식들 저금을 낼 때면 보통 큰아들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작은아들은 신산마을에 집을 지어서 살게 했죠. 오산마을이 좀 좁은 동네라서요. 그래서 신산마을은 오산마을의 작은집 이라고 생각 하던 겁니다. 대부분 오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씨 집성촌이었지요.

수해가 수도 없이 났습니다. 마을이 이주하게 된 동기가 수해 때문이에요. 한번은 독이 터져서, 지금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크루브 역 자리에 있던 동네가 다 잠길 정도로 난리가 났죠. 그 후로 지금의 도사동사무소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죠. 시에서 택지를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구입해서 이주하게 되었죠. 수해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 네 집 정도가 남아 있다가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하면서 이주하게 되었죠. 할머니들은 당신이 평생 살던 집을 떠나기 힘들잖아요? 그분들 몇 분만이 남아 있었죠.



채소의 성지, 여기가 바로 기재포전

마을은 거의 대부분이 포전(채소농사)이었습니다. 당시 역전시장의 채소 90%가 일년 내내 우리 동네에서 나갔어요. 역전시장이 가까워 직접 가서 판매를 해요. 새벽 4시가 되면 장이 열려요. 보통 저녁에 다듬어서, 리어카에 싣고 역전으로 올라가면 자리가 있어요. 저녁에 거기다 내려서 덮어놓고 오면, 어머니는 새벽 3시에 걸어가서 상인들한테 도매로 내고, 다 못 팔고 남은 것은 주위의 김포덕 등 아는 가게에 맡겨 놓고 와요. 돌아와서 식사하고 또 밭에 가서 일하고, 평생을 그걸 반복하면서 살았죠. 봄에는 상추, 열무, 여름에는 오이, 가지, 토마토, 가을에는 김장배추..... 겨울 빼고 일 년을 그렇게 내내 포전이 돌아가죠. 겨울에도 서피⁽⁴⁾를 덮어서 시금치 같은 것을 키우고, 지금 역전시장에서 채소 파는 상인들한테 신산마을 물어봐도 다 알 거예요.

겨울에는 주로 새비(새우) 치러 다니고, 사랑방에 모여서 놀고, 다음해 농사 준비도 하고, 벼짚으로 새끼 짜고 명석 만들고 가마니도 짜고 했어요. 마을회관에 새마을공장이 있었는데 마을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팔았어요. 수익금은 마을 공동자금으로 사용했고요.

신산마을 우물에서는 짠물이 나와 물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오산마을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오산마을에는 샘이 두 개가 있었지요. 우리집 샘이 그 중 작은 샘물 인데 물맛이 좋았어요. 학생들이 소풍 오면 우리집에 물 먹으러 많이들 왔었죠.

(4) 벼짚으로 짠 덮개

우리 도사국민학교를 중앙하고 비교할 수가 있나

우리 마을 애들은 도사국민학교를 다녔어요. 평촌마을 아이들은 중앙국민학교로 갔고요. 우리가 맨날 “중앙 중앙 거지떼”라고 놀렸죠. 학생 수는 한 2천 명 정도였을 거예요. 한 학년에 한 300명, 한 반에 50~60명 정도. 평촌마을과 동네는 가까워 보여도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이유는, 그땐 강을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우토반(남승룡로가 처음 생겼을 때 곧고 길게 뻗은 이 길을 ‘아우토반’이라 부르는 일부 시민들이 있었다_편집자 주.) 밑에 보면 세월교가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말목을 박아서 물이 깊은 곳만 나무로 다리를 만들고, 비와서 못 쓰게 되면 다시 만들고. 소들은 전부 헤엄쳐서 다니고, 우리는 소 등에 타고 건너고. 나중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저 다리가 생기게 되었죠.

겨울이면 냇가에 얼음이 많이 얼어서 얼음 배를 만들어서 얼음싸움을 하면서 놀았고, 얼음을 깨서 타고 다니면서 작대기로 상대방 얼음 배를 깨서 물에 빠뜨리는 놀이를 했어요. 항상 물을 끼고 살아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 년 내내 수영을 하고 살았으니까. 특히 여름에는 종일 물에서 살았죠. 발로 더듬어가면서 갯조개(재첩)가 걸리면 잠수해서 잡고, 놀다가 배고프면 밭에 가서 오이랑 토마토를 따서 먹고, 그런 것들이 유일한 간식거리였지요. 방학 때는 할일이 없으니까 ‘야호’를 나가요. 새벽 4시쯤 밖에서 누가 “야호”를 외치면 다들 옷을 주워 입고 나가요. 킁킁할 때부터 해룡산 망월대로 올라가서 총싸움하면서 동이 틀 때까지 놀고 토끼몰이도 하고. 토끼는 잡지도 못했어요. 자치기, 뽕봉(주먹아구), 또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게임도 많이 하고 놀았지요.

어머니들이 순천만에 계 잡으러 가면 따라가서 같이 잡으면서 놀기도 했어요. 빨래방망이로 계 구멍을 쭉 쭈시면 계가 나와요. 칠게, 농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서 바게쓰에 넣어요. 우리 먹을 것만 잡지, 팔려고 잡지는 않았어요. 대나무로 낚싯대를 만들어서 문절이를 잡기도 했네요. 문절이는 명칭해서 아무 미끼를 끼워서 던져도 잡혔어요. 짱뚱어는 또 달라요. 전문가만 잡지 우리는 잡지도 못했어요.

소 판 돈 털리고 ‘울고 넘는 털고개’

현재 신산마을 쪽 전체를 호현마을이라고 불렀어요. 마을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순천에서 최초로 색시집이 생긴 마을이에요. 호현마을을 대곡이라고도 하고, 털고개라고도 합니다. 털고개라고 부른 이유는 옛날에는 그곳이 별량, 보성, 고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지금의 청암대 앞 큰 길이 없었을 때니까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던 길이었어요. 순천 장에 소를 팔러 나온 사람이 소 판 돈을 허리춤에 차고, 막걸리 딱 한잔만 하고 가려고 색시집에 들어갔다가 홀라당 털어먹고 간다고 해서 털고개라고 불렀죠.

새마을회관과 새마을문고

새마을회관 안에 있었죠. 중학교 때 정도로 기억하는데, 시에서 해마다 새마을경진대회를 했어요. 웅변대회 같은 걸 했지요. 거기 발표회에 나가서 책을 20~30권씩 상품으로 받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랑 기증 받은 것들을 모아서 장서실을 만든 거예요. 마을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소지요. 책상도 몇 개 있어서 공부하다 책도 읽고 했어요. 순천고 다니던 형들이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학생들의 아지트 같은 장소였어요. 나중에 물난리가 나서 홀라당 물에 잠겨버려서 흐지부지 없어져버렸죠. 지금으로 치면 작은 마을도서관 같은 곳

이지요. 물난리가 났을 때 책이라도 빨리 빼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날마다 가서 정리도 하고 애착이 갔던 곳인데, 전 그때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때라 물난리가 난 뒤에 얘기를 들었죠.

2) 오광목 순천시의회 의원

안녕하세요. 제 고향은 오산마을입니다. 신산마을 이전에 오산마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산마을은 국가정원 밖 스카이큐브가 출발하는 정원역 뒤에 있는 마을입니다. 국가정원에 습지 형태로 꾸며놓은 곳이 바로 신산마을 터예요. 거기에 설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큰 홍수가 나서 동천둑이 터져서 지금 스카이큐브 정원역이 있는 곳의 둑이 터져서 신산마을이 침수되었죠.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한 가구당 3천만 원씩 투자해서 조합을 만들고 이주 단지를 조성했어요. 그게 지금의 신산마을 부지입니다. 국가정책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기반 조성은 시에서 해줬습니다. 상습수해지구라 살기가 힘드니 이주를 하겠다고 주민 스스로가 제안을 하고, 마을 기반시설을 만들었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수해지구로 지정해서 생활 필수품 등을 지원해주었지요. 돈이 없는 분들은 이주 단지로 못 가고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속 사셨죠. 그러다 최종적으로 국가정원이 조성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던 분들도 이주를 나왔어요. 가장 늦게 나온 곳이 설만한 교회였어요. 저는 오산마을에 살았고 신산마을은 바로 앞 한 마을이나 다름없이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 그리고 독방길과 소

저는 유독 엄마를 따라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저보다 두 살 어린 동생이랑 둘만 있으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초가집에 살았고 뭐 먹을 거도 없었어요. 형이 둘이 있는데 형들 학교 가고 아버지는 들에 일하러 가시고 안 계시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장에 가면 꼭 따라가고 싶었어요. 내가 따라간다고 귀찮게 하니까 항상 엄마는 데리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장날이 되면 어느 순간 짝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저를 따돌리고 장에 가신 거죠. 그러면 슬퍼서 한참을 울다가 동생이랑 놀죠. 어느 날부터는 미리 눈치를 채고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장에 따라 다녔어요. 엄마를 놓친 날은 동생이랑 엄마를 기다리면서 동천 독방길로 갑니다. 아랫장에서 독방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시니까. 그때 독방길에 코스모스랑 국화꽃이 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집에 소, 돼지, 오리가 있었어요. 방아 찼어 나온 쌀겨를 섞

어서 돼지 밥으로 주었지요. 소는 풀이나 짚을 작두로 잘라서 가마솥에 넣고 곡식 쪽정이를 섞어서 끓여 줬고요. 닭은 여름철에 가족들 보양식으로 백숙 한다고 키우고 제사 때 잡기도 했죠. 오리는 왜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마당에 꼬랑(도랑)을 만들어서 오리가 놀 수 있게 해주고, 닭은 닭장을 만들어서 가둬 키웠어요. 모내기철이나 농사철인 봄이면 아버지가 동천 독방에 소를 내 놓습니다. 말뚝 박아서 소고삐를 묶어 놓으면 풀을 뜯어 먹죠. 아버지는 저한테 해 넘어가기 전에 소를 집에 데려다 놔라 그러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방만 마루에 획득쳐 놓고 숙제도 안 하고 동천 독방으로 나갑니다. 독방에 가면 우리 소뿐 아니라 온 동네 소가 다 흩어져 풀을 뜯고 있습니다. 소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자기 집 소는 금방 알아봅니다. 소고삐를 풀어 놓으면 천천히 독방길 따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동네 쪽으로 움직여요. 소를 풀어 놓고 우리 또래들은 약속이나 한 듯 독방에 다 모여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구슬치기하며 놀고 날씨가 더울 때는 동천에서 목욕 감죠. 우리 어릴 때는 반스만 입고 동천에서 목욕을 했죠. 반스도 안 입은 가난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물이 있는 곳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놀았어요. 냇물 말고, 못판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담아둔 논에서도 놀았는데 그럴 때면 눈두렁 잘못 밟아 물이 빠져버릴까 봐 어른들이 쫓아내고는 하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동천에서 물장난하다가 오고 소는 저쪽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내려와, 지금 꿈의 다리 정도 위치에서 만나요. 우리는 소 배를 보죠. 소 배가 오른쪽은 물배고 왼쪽은 밥배라고 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때 소 배가 빵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빵빵하게 물도 먹이고 풀도 더 먹이고 해서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과는 끝났고 이제 밥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물속에서 놀았으니 배가 고플 만하죠. 엄마가 들에서 일찍 오시면 밥을 일찍 먹고 늦게 오시면 기다리다 보리 삶아 놓은 걸 몰래 털어 먹기도 했어요. 옛날엔 보리를 미리 삶아서 구멍 뚫린 소쿠리에 넣어 높은 데

다 걸어 놓았어요. 배는 너무 고프고 엄마는 안 오시고 그럴 때는 그걸 내려다 떨어져 먹고 안 먹은 것처럼 다시 그 자리에 걸어두죠. 맛은 더럽게 없었어요.

우리가 오징어게임의 원조

며칠 전 우리 문중 중친회를 했는데 한 분이 해룡산성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거기서 많이 놀았는데 깨진 기와 조각이 많았어요. 우리는 그 깨진 기와 조각을 들고 오래 돼 보이니 “보물이다!” 하면서 놀았어요. 그때는 TV에서 뭐 땅에서 문화재가 나왔다 하면 돈이 천문학적 숫자니까, 우리는 이런 거라도 혹시 귀한 것이면 좋겠다고 재미로 기대를 했던 거죠. 해룡산 정상 망월대에서 내려다보면 국가정원이 다 내려다보이고 순천만습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해룡산을 중심으로 쏘다니면서 놀았어요. 요즘 오징어게임이 인기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오징어간세’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땅 짚을 때 “오징어간세!” 하고 짚거든요. 그러면 우리 팀이 이긴 거예요. 이긴 팀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해요. 수비하는 사람들이 다 막아내면 공수가 바뀌는 거죠. 국민학교 학년별로 보통 10명씩 동네 애들이 모여서, 한 40~50명씩 같이 몰려다니면서 놀았어요. 오징어간세 게임 팀, 나이먹기 게임 팀 등으로 나뉘서 놀았죠. 어린애들은 오징어간세 하면서 놀고 고학년들은 나이먹기 게임을 주로 하고 놀았어요. 나이먹기 게임은 양쪽에 기둥 같은 것을 하나씩 정해 놓고 기본 3살을 주고 시작해요. 3살로 시작해서 나보다 나이가 적은 상대편을 잡으면 그 사람의 나이를 빼앗아 먹어요. 그렇게 나이를 먹다 60살 환갑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왕도 될 수 있어요. 60살이 넘는 사람은 같은 팀원에게 나이를 나눠 줄 수 있어서, 팀원 전체가 60살이 되면 이기는 게임이죠.

나무막대기 총을 들고 총싸움도 많이 했고요. 또 겨울이면 동천에서 스케이

트랑 썰매를 탔어요. 옛날에는 동천이 엄청 넓게 보였습니다. 도사국민학교 운동장보다 더 넓어 보였어요. 텔레비전에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서 스케이트를 만들어서 탔어요. 그걸 칼 스케이트라고 했어요. 칼 스케이트는 둥근 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한 곳은 신발이 닫게 해서 끈으로 묶고 두꺼운 철사로 스케이트 날을 만들어서 부착한 뒤에 못을 앞부리에 박아서 턱을 만들어 주지요. 그걸 신고 얼음판을 팍 치고 나가면 쭈욱 미끄러져 나가요. 정말 신났죠. 요즘은 동천이 어는 걸 보기가 힘들지만 옛날에는 엄청 두껍게 얼어서 겨울이면 신나는 놀이터였지요.

유행을 선도했던 신산마을의 가수 유망주

제가 노는 걸 좋아하고 특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짝꿍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의사였지요. 그 친구 덕에 바나나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세상에 이렇게 맛난 과일도 있다냐!” 했지요. 딱 한 번 베어 먹었는데 겁나 맛나더라고요. 그 애가 마이클잭슨을 들먹이고 ‘빌리진’을 들려주기에 뽕 가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죠. 레코드사에 가서 테이프 녹음을 했어요. 테이프 녹음하는 데 돈 쓴다고 하면 엄마가 돈 안 주니까 참고서 산다고 뺨쳐서 거금 2,000원 주고 녹음을 했죠. A면은 마이클잭슨 ‘빌리진’ 같은 팝송, 그리고 B면은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김수철의 ‘못 다 핀 꽃 한송이’, 송골매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김학래 ‘슬픔의 심로’ 이런 노래가 순번이 되었죠. 엄마가 채소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거짓말해서 받아서 처음으로 만든 프로젝트 테이프였습니다.

중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시험을 보고 나면 동네 친구들이 모여서 놀았어요.

상급학교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좀 흥가분하잖아요. 그땐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으니까.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공부 안 해요. 동네에 우리 또래가 유독 많아서 남자가 10명, 여자가 10명, 합해서 20명이나 됐어요. 낮에 모여서 놀다가 낮에 못 온 친구들은 밤에 또 만나요.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방에 이불 깔아 놓고 뭘 이야기를 하는지 밤새 조잘거리며 놀았어요. 그때는 부끄러워서 남자 여자가 잘 안 만날 때죠. 그러다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부산으로 취업차 떠나는 여자 친구를 송별식 해준다고 한번은 또 모인 겁니다. 우리집에 있던 천막을 가지고 저녁에 산으로 갔어요. 자동차 밧데리를 공부를 해가지고 녹음기와 전기를 설치해서 날이 새도록 놀았어요. 녹음기를 건전지로 틀면 소리도 작고 빨리 닳았는데 밧데리에 물리면 소리도 빵빵하고 밤새도록 신나게 비비고 소리도 지르면서 놀 수 있었죠.

평생 흙을 파서 자식을 먹여낸 부모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고구마, 감자, 오이, 가지, 옥수수 같은 것들이 집에 많았지만, 그걸 먹을 수 있었느냐? 턱도 없어요. 팔아야 하는 작물이라 우리는 손도 못 댔어요. 봄이 되면 겨울에 얼었던 땅을 갈아서 이랑을 만들고 그곳에 봄배추, 일갈이배추, 알타리, 열무, 쑥갓, 상추 등 채소를 심고, 여름이 되면 동네 사람 대부분이 가지와 토마토를 심습니다. 그 작목이 제일 수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야채를 팔러 가면서 “돈 사러 간다”고 해요. 제가 4학년쯤 되었을 때 엄마가 여수로 야채를 팔아 돈 사러가자고 하더라고요. 방학을 하면 맨날 야채 가져다주는 일은 제가 했어요. 아침마다 아랫장에 팔리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수까지 가자고 해서 죽을상이었지만 싫단 소리도 못 하고 따라갔어요. 전날 수확한 야채를 구루마에 싣고 역전으로 가서 여수 가는 기차를 타는

것이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여수역에 내려서 엄마는 오이 상자를 머리에 이고, 나머지는 요소비료 포대에 담아 옆구리에 끼고 걸었어요. 저는 마대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엄마를 따라 재를 넘어갔지요. 포장마차가 많은 데에 가서 엄마가 짜장면을 사주는데 그 맛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팔다가 다 못 팔면 가까호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엄마가 여수 가서 그러면 짜장면 먹는 재미로 따라다녔죠.

우리 농토가 평촌마을 앞에 있었어요. 집에서 눈에 갈 때 동천을 가로질러 갈 다리가 없어서 평촌마을까지 내려가서 거기 있는 보를 건너다녔어요. 물이 많으면 침병침병 건너가고 물이 없으면 징검다리가 있어서 건넜어요. 아버지가 눈에 갈 때 빈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물이 많을 때 강을 건너거나 좁은 산길을 갈 때는 아버지가 구루마를 등에 짊어졌어요.

신산마을에 두고 온 옛 기억

제가 학교 가기 전의 기억인데 마을회관에 탁아소가 있었어요. 마을회관 탁아소에 장난감이란 책이 많았어요.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와서 울동도 배웠고요. 동네에 오양순 누나라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그런 보육 계통에 있었나 봐요. 양순이 누나가 앞에서 울동을 하면 너무 좋아서 푹 빠져서 보고 있었어요. 울동이 끝나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인데, 뒤쪽에 정리되어 있는 장난감 중에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너도나도 막 뛰어갔어요. 가장 인기가 좋은 장난감이 자동차였고, 그중에서도 최고는 흙을 실어서 넘길 수 있는 텀프트럭이었어요. 엄마가 장에 따라가자고 해도 싫다 하고 탁아소에 가서 울동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 프로그램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 같아

요. 제가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책을 대여도 해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서관이죠. 동네 큰 형님들이 운영을 했어요. 마을 청년들이 책을 빌려주고 관리도 하고. 마을회관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평소 학교 숙제도 안 하던 제가 한 권이라도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커서는 동네 경로잔치를 하는 걸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형님들이 은박지로 벽에다가 경로잔치라고 글씨를 만들어 붙이고 어른들 모셔다 놓고 재롱 떨고 음식을 대접했던 것 같아요.

Ⅲ. 순천만국가정원과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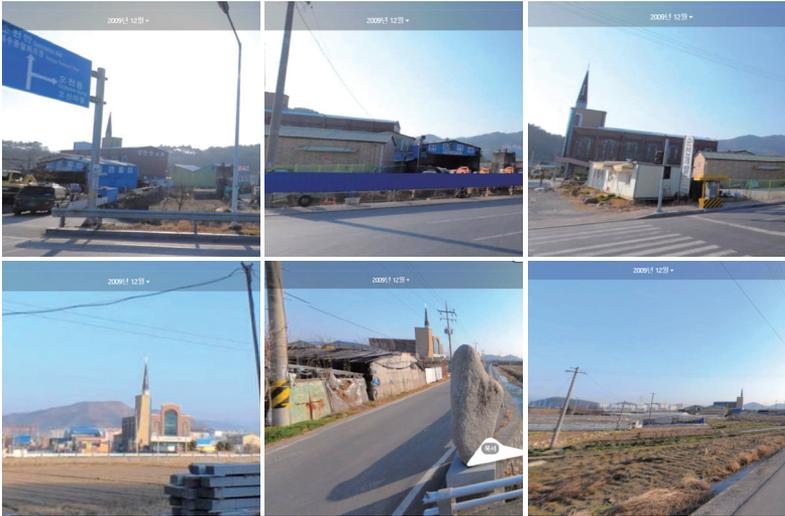
1. 평촌마을과 신산마을의 마지막 모습

순천만국가정원이 조성되기 바로 전 평촌마을에는 할머니가 혼자 사는 살림집이 한 채 있었고 축사가 8개 있었다고 한다. 축사 중 전남축산 같은 곳은 전남 권에서도 제법 규모가 커서 전국에 납품을 했다. 평촌마을의 축사에서는 주로 개와 염소를 키웠다고 한다. 그리고 주위에 비닐하우스에서는 미나리를 많이 재배하였다.



정원 조성 전 평촌마을(이천식 제공)

신산마을의 경우 정원 조성 직전에는 살림집은 없고 설만한 교회와 천일기공, 순천개발, 동부건축자재와 창고형 건물이 두세 채 있었다. 설만한 교회 앞 도로를 따라 도랑이 있었다.



사진출처- 다음 로드뷰,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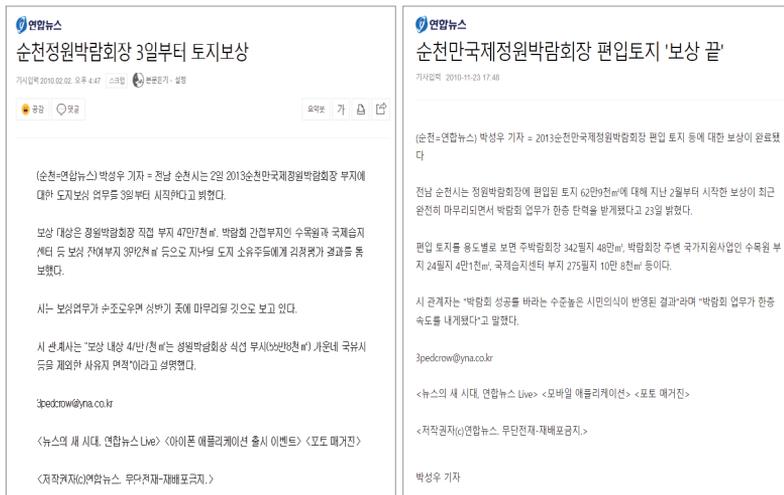
2. 토지 보상 과정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순천만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설득과정 등을 통해 2010년 11월 22일, 마침내 계획했던 정원박람회장 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보상을 위해 새벽부터 토지소유자 집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민원인에게 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문중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나서 문중회의를 주선하는 일도 있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민원해결 등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큰 문제없이 부지매

입을 완료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상비가 적은 상황에서도 산림서비스림으로 토지를 내준 시민, '기재포전'에서 생산된 채소라면 떨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은 오산마을의 채소생산자 주민, 선조로부터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켜온 풍덕동 정원박람회장 부지 토지소유자, 평촌마을에서 축사를 하고 있던 축산농가 및 하우스, 건축물 소유자, 오산마을과 풍덕동 주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조상의 묘 이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분묘연고자와 낫선 곳으로 이장되어야 했던 수많은 무연분묘의 영령들까지 보이지 않는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성공 개최로 이어질 수 있었다.⁽⁵⁾



(5) 「지구의 정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백서」 133쪽에서 발췌

3. 토지 보상 담당공무원의 기억(구술채록)

순천시청 이수형 팀장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당시 토지보상업무 행정7급 공무원

안녕하세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당시 토지 보상을 담당했습니다. 국가정원 안에 현재 흥학이 있는 물새놀이터 부근에서 동천변까지가 신산마을 자리입니다. 원래 신산마을은 오산마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오산마을이 105호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오씨들이었고 조씨와 정씨가 좀 있었습니다. 마을 자체가 산 밑에 있다 보니 공간이 좁아서 자녀들이 결혼하면 앞 논에 흙을 채워서 저금 낸 곳이 신산마을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어난 것이 26에서 27정도의 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989년에 스카이큐브 쪽 동천 둑이 터져버려서 범람을 했고 그걸 계기로 현재 호현마을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원 조성 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신산마을 자리에 살림집은 없었고 설만한 교회, 동부건축자재, 순천개발 컨테이너 하나, 천일기공 정도만 있고 창고 같은 건물 한 두 개 정도만 있었습니다. 참 땅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땅 자체가 사질토여서 배수가 잘 돼 사계절 채소를 키워서 돈을 벌었던 곳입니다.

화려한 순천만국가정원 이면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들’

정원을 조성할 때 정말 모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땅을 파 보면 다 모래일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완전 모래바닥이었습니다. 그 모래가 정원 조성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60, 70년대만 해도 이 근처 사람들이 모래를

팔아서 돈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 당시 말이 모래를 싣고 다녔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모래를 한 짐, 두 짐 갖다 주고 10원, 20원씩 받아서 학용품을 사고 용돈으로 썼다고 해요.

환선정이 있는 곳, 지금 동부교회 자리가 예전에는 동천에 있었던 섬이었다고 해요. 지금 동천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과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1962년 수해 때 물길에 생긴 곳에 그대로 독을 쌓아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고요. 그래서 토지 보상을 할 때 동천의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땅을 찾는데, 동천 안에 개인 땅(사유지)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라진 두 마을에 대한 기억

예전에 풍덕동을 '풍덕동'이라고 했는데 평촌마을이 딱 그랬습니다. 지대가 낮아 물에 자주 침수된 곳인데 1962년 수해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80년대까지 거의 다 지금 한신아파트 옆 하풍마을 등으로 이주를 한 상태였고, 정원 조성 시에는 살림집은 한 가구만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사 갈 곳을 못 구하신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버린 빈 집들에는 축사들이 임대료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주로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전남축산, 용파리축산 등 크고 작은 업체 8개가 있었습니다. 전남축산 같은 경우는 개만 해서 500마리 정도를 키웠고, 염소와 돼지도 많았는데 전국으로 납품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동부6군에서는 규모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공장이 크게 하나 있었는데 지하수에 염분이 많아서 콩나물 공장이 운영이 잘 안 되고 빈 건물만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 빈 건물도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물탱크도 하나 있었어요. 평촌마을에 수도가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간이 상수도를 이용했는데 지하수를 퍼 그 물을 저장했던 물탱크였습니다.

특별한 것으로는, 독수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평촌마을뿐 아니라 해룡 쪽에도 커다란 염소 축사가 있었는데, 키우다 죽은 염소나 개들 또는 부산물을 논에다 던져 놓고 했나 봅니다. 독수리가 그것을 먹으려고 새까맣게 앉아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한 50여 마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가가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뛰어가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축사를 하시는 분에게 듣기로는 죽은 염소 한 마리를 던져 놓으면 순식간에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축사에서는 처리 비용이나 수고를 아낄 수 있어서 좋고 독수리들도 손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상부상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평촌마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미나리를 많이 재배했었기 때문에 관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 한 필지에 관정이 두세 개도 있었습니다.

신산마을에 대한 기억도 있어요. 지금 한국정원 쪽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묘지를 다 이장하고도 무연고 묘가 제법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30, 40개는 넘었을 겁니다. 묘들을 황전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주인 없는 묘지만 최대한 안전하고 말끔하고 경건하게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가 장마철이었는데 태풍도 오고 걱정되어 막걸리랑 과일을 사가서 살펴보고 기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랑 훗날 “국가정원이 잘 된 것은 그때 우리가 그 묘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염원해서다”라고 웃으면서 농담하곤 했습니다.

꿈의 다리 밑에 있는 세월교는 아주 탄탄하게 지어진 다리입니다. 80년대에 주민들의 땀과 피로 만든 다리입니다. 오산마을 사람들이 동천 건너 농사를 지으러 다닐 때 나무로 만든 허술한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물이 차면 떠내려가 버리곤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던 유경현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하나도 헛되게 쓰지 않고 철근과 시멘트, 밀가루만 샀다고 해요. 철근과 시멘트로

직접 주민들이 비벼서 만들었고 밀가루는 일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세월고입니다. 세월(洗越)은 물이 차면 씻기고 넘친다는 의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정원 뒤에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원래는 신산마을에 있었습니다. 지금 습지센터가 들어선 자리입니다. 잎사귀도 엄청 많았고 엄청 크고 멋진 나무였어요. 그래서 나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로 정원을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당시 최덕림 국장님도 그 나무 옆으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천장을 뚫어서라도 만들자고 했는데 결국 옮기게 되었습니다. 포플러나무 꽃가루가 알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내공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동문 쪽에서 잘 살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모두의 양보와 희생으로 탄생한 순천만국가정원

토지를 보상할 때 주민들은 “땅만 보상하지 말고 여기서 생계로써 채소를 키워 돈을 버니 미래의 소득가치까지 보상해 달라”고 했지만 마냥 그럴 수만은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요. 법만 아니면 어떻게 좀 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산마을에서는 정원과 관련해서 마을에도 이익이 좀 발생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민박 등의 사업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설만한 교회나 동부건축자재, 전남축산 등 사업체들은 이전할 땅을 먼저 구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보상은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사 놓고도 그곳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다른 곳을 또 알아봐 옮긴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좀 걸렸지만 고맙게도 다들 큰 반대 없이 협조해 주셔서 토지 보상이 6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여러 단체가 협조한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땅 소유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이 국가정원의 가장 큰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록

1. 정원이 되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 기록활동 후기

2. 평촌마을과 신산마을 변천사

1. 정원이 되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 기록활동 후기

“지나간 것에 대한 기억 찾기... 활동을 마치며”

구상나무 김정희

살아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설렘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다. 새로운 경험의 기회는 쉽게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막연하게 되고 싶었던 것이 참 많았던 어린 시절 많은 꿈을 꾸었던 것 같다. 그중 하나가 작가, 기자였다. 막연하게 이런 직업이 참 멋있게 느껴졌다. 드라마에서도 여기자, 여작가의 역할이 너무 멋지게 그려졌으니까.

2020년 정원해설사가 되면서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자 스튜디오모임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번 아카이브 활동도 스튜디오모임의 확장 활동으로 하게 되었다.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우리 스튜디오모임의 회원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로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인생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인 것 같다.



하풍마을(평촌마을 이주지) 현장답사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릴 때 해보고 싶었던 일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해 볼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이었고 꿈을 이룬 것 같기도 하다. 사라진 마을을 찾아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하고 마을에 찾아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수 있었던 것은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일이었다. 물론 모든 것이 즐거운 작업일 순 없다.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핑크 내는 사람도 있었고, 일정 맞추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또 들은 이야기를 다시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위해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이야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알아간다는 즐거움도 있었다. 또한 기억이란 상당부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남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억은 그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마을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기억 속의 이야기가 있

을 것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의 가족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부모가 점점 기억을 잊어버려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잊기 전에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게 해 드리고픈 마음이다. 물론 나의 기억의 소환 작업도 진행하고 싶다. 나의 기억을 소환하다 보면 어릴 때 꾸었던 꿈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수많은 크고 작은 꿈들이 현실이 되고 난 그 속에서 언제나 주인공인 것이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는 나는 이번 작업도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룬 것 같다.

이번 활동은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사회의 다양한 일들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록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구술채록을 시작하면서”

구상나무 김동순

글을 쓴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세 줄 일기쓰기에 도전을 하였지만 작심삼일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혹여 팀원들에게 피해나 주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정원 조성으로 사라진 평촌마을과 신산마을 이야기라니, 뜻은 좋으나 정든 마을을 떠나야 했던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다시 상기시키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분 두 분 만나면서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고 흐릿해진 기억에 더 많은 이야기를 못해주는 점을 미안해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연세는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기억이 점점 흐릿해져가고 있

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정원으로 바뀌어서 멀리 사는 친구들이 오면 내가 꼭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곤 하지”

국가정원의 한방체험센터 자리가 어르신들의 집터였다고 소개하시는 윤자 시인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시면서 뿌듯해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늦기 전에 신산마을과 평촌마을 구술채록을 하게 되어 참 다행이란 생각과 함께 귀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익숙하고 편한 일만 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에는 망설여지며 자신감도 떨어지고 신경 쓰이는 일은 피하게 되었지요. 이번 구술채록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함께한 우리 구상나무 팀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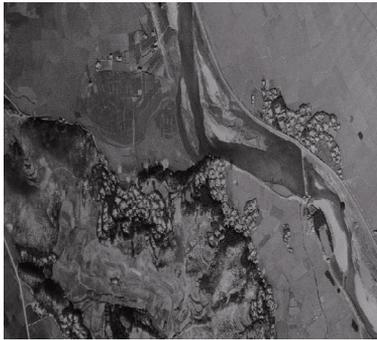
이번 일을 계기로 정원에서의 해설 내용도 풍부해지고, 그분들의 애뜻한 마음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정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원 조성에 큰 도움을 해주신 신산마을 평촌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윤자 시인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인터뷰

2. 평촌마을과 신산마을 변천사

동천을 사이에 둔 평촌마을과 신산마을 변화 모습



1948년



1970년



1979/80년



1985년



1990년



1993년



2010년



2013년

순천시청 홈페이지 지리교통, 공간정보, 순천시 생활지리 정보시스템, 항공사진

참고 문헌

순천시사

2013, 2018 순천시 마을자원조사

순천의 마을의 유래사(순천문화원, 1993)

지구의 정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백서

우리동네 풍덕동(2018)

순천만국가정원해설사회 다음카페

도움 주신 분들

사진제공 故김학수, 이천식, 풍덕동 주민자치회, 인쇄나라다컴

구술자 평촌마을 어르신들, 오산마을 3형제, 윤만태, 윤 자, 배상우, 오광
 목, 조종현, 이수형

자문 양진석

조사자 구상나무(양란희, 김정희, 송은자, 김동순, 김은숙)

순천문화재단 순천문화연구 소모임활동보고서
정원이 되어버린 마을 평촌마을 · 신산마을

펴낸날 2022년 5월 31일
지은이 구상나무
양란희 김정희 송은자 김동순 김은숙
편집 양란희
자문 양진석
펴낸곳 시너지콘텐츠
주관 순천문화재단
ISBN 979-11-92026-15-2

이 도서는 순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순천문화재단과 지은이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